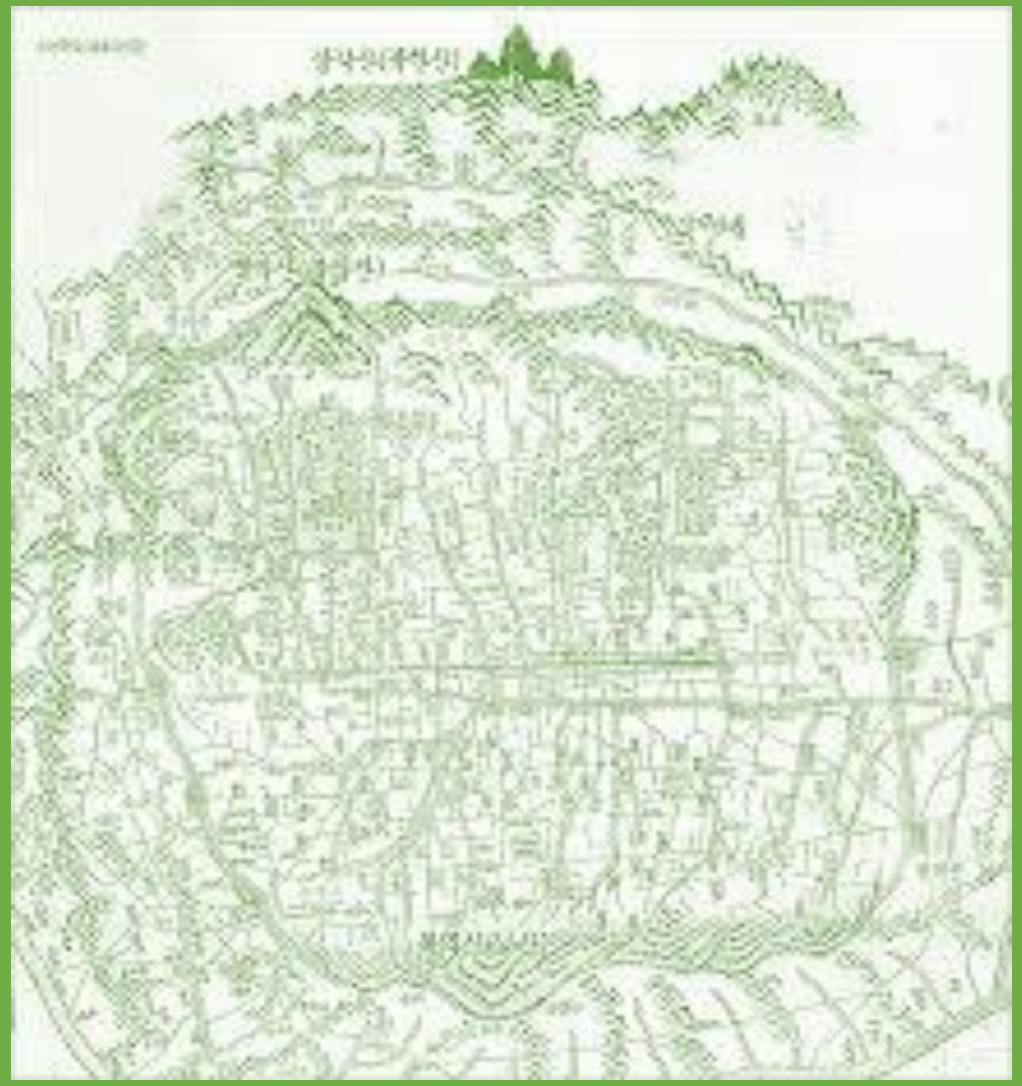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강의안

한국의 문화와 유물 유적



CONTENTS



Ⅰ. 궁 궐

Ⅱ. 종묘 / 왕릉

Ⅲ. 성곽 / 기록물

경주월성지구 : 왕족들의 놀이터와 천문대

경주 - 2중성 구조 - 내성인 월성과 남산의 산성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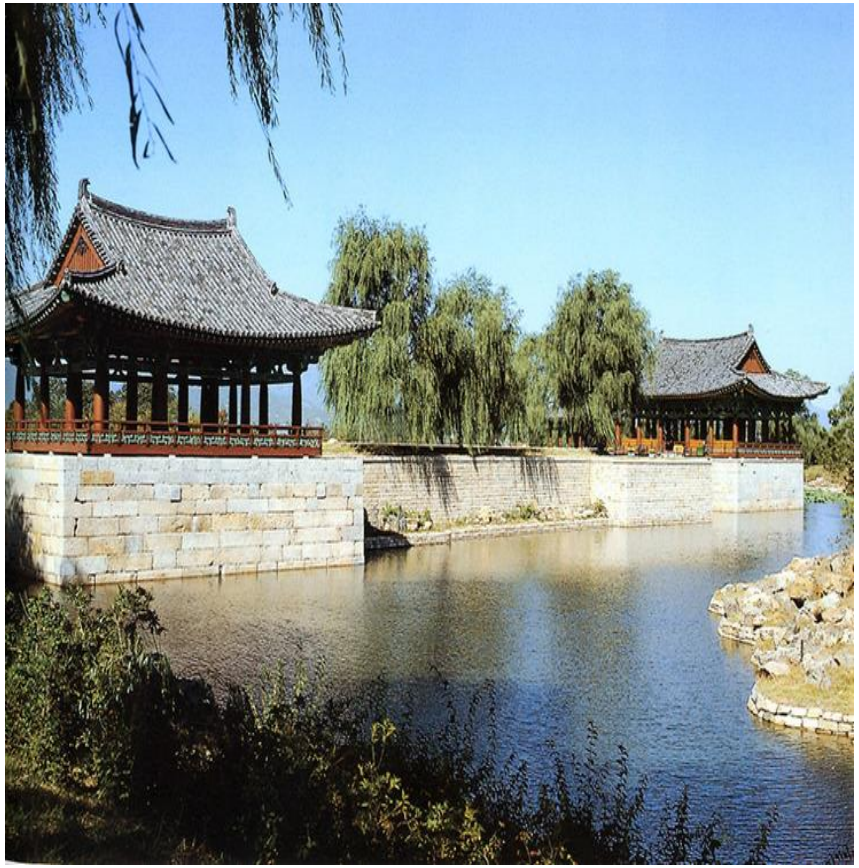
월성 - 서기 101년 축조 - 신라의 왕성





경주월성지구 : 왕족들의 놀이터와 천문대

안압지 - 동궁에 딸린 인공연못정원 - 직선과 곡선(한국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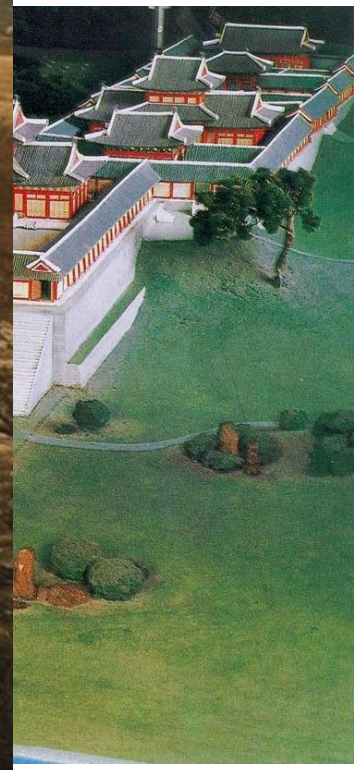


- 안압지 서쪽에 위치한 신라 왕국의 별궁터
- 손님이 오면 연회를 베풀던 곳

- **동북아의 균형자 고려 : 개경 나성**







동서 445m, 남북 150m의 장방형 / 만월대에서 정전(正殿)은 회경전(會慶殿)

- **동북아의 균형자 고려 : 개경 나성**

오백년 이어온 도읍지를 홀로 말을 타고 들어가 보니
산과 강은 옛날과 다름없으나,
충신은 어디에도 없구나.
아아! 태평성대를 누리던 지난날이 하룻밤 꿈과 같구나.
- 고려 충신 길재.



만월대 : 고려의 수도 개경에 있었던 옛 궁궐터

- 고려 말 홍건적이 침략시 방화로 소실된 후 최근까지 폐허로 방치

- 2007년 남북 역사학자들이 모여 공동 발굴

- 흙을 1m 정도 걷어내자 궁궐 지붕에 있었던 기와 조각 발굴

- **동북아의 균형자 고려 : 개경 나성**

– 왕건은 궁예를 몰아내고 자신의 고향인 개경을 수도로 삼아 고려 건국

- 개경은 고려의 중심지로 당시에는 개경, 송도, 송경 등으로 불림
- 재 개성에는 수도를 방어하던 외성(나성)을 비롯해 내성, 황성, 궁성 등 네 개의 성터와 만월대로 불리는 고려의 왕궁 유적 분포
- 개경은 고구려 평양성과 같이 평지와 산을 연결하여 성을 구축, 송악산 아래 만든 궁궐은 정전을 중심으로 여러 건물을 높은 언덕 위에 축대를 쌓아 건설, 축대를 이용해 땅의 모양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궁궐을 더 웅장하고 위엄 있게 보이도록 함



송도전경(송도기행첩 중) 강세황, 조선시대

- **동북아의 균형자 고려 : 개경 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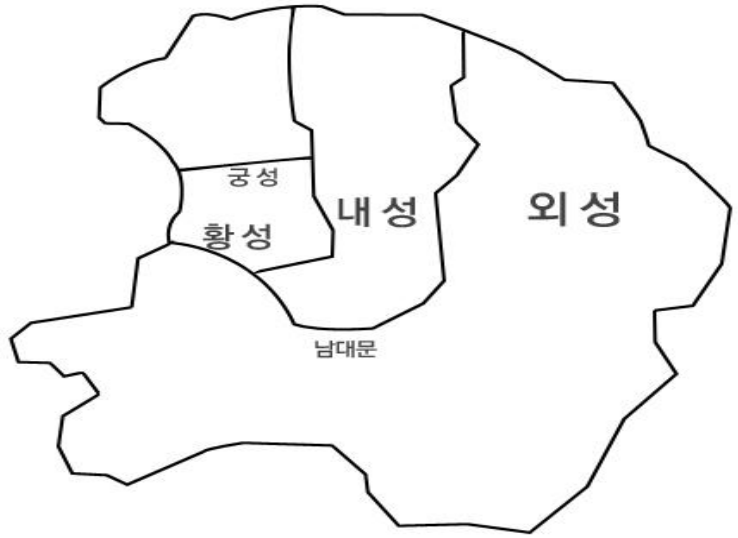
- 고려의 도성은 궁성·황성·내성·외성 등 4겹의 성으로 이루어짐

- 건국 초기에는 후삼국시대에 태봉이 쌓았던 발어참성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그 자리에 궁궐을 창건

- 3차례 거란의 침입이 있은 뒤인 현종 때에 이르러 수도를 방어할 도성이 필요하게 되었고 강감찬의 요청을 받아들여 도시 전체를 둘러막은 도성으로서 나성(외성) 축조

- 현종이 즉위한 해(1009)부터 현종 20년(1029) 사이에 장정 238,938명과 기술자 8,450명을 동원하여 쌓았는데 성 둘레에는 큰 문 4개, 중간 문8개, 작은 문 13개를 설치하였고 성안은 도시를 5부 35방 344리로 구획

- 개성의 이방(里坊)은 지형 조건에 맞추어 구획되었기 때문에 앞 시대의 정연한 정(井)자형 도시와는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음



개성 성곽의 구성. 밖에서부터 외성(나성) · 내성(반월성) · 궁성 · 황성 등 4중으로 궁성을 보호하고 있다. 이는 '천자국'을 지향하였던 고려인들의 세계관이 반영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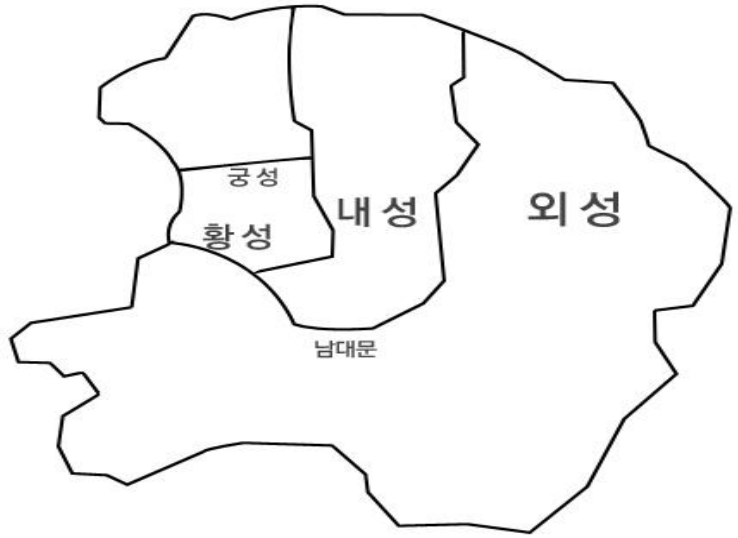
- **동북아의 균형자 고려 : 개경 나성**

- 나성 안쪽에 다시 내성을 쌓은 것은 1391년부터 1393년 사이인데 이때는 고려의 국력이 크게 약화되고 왜구의 침입이 극성한 시기였기 때문에 수도의 방어를 강화할 필요

- 내성은 평면이 반달 모양이라는 이유로 '반월성'이라 부르기도

- 성 둘레에는 남대문을 비롯하여 동대문·동소문·서소문·북소문·진언문 등 7개의 성문이 있었는데 문루는 대개 없어지고 남대문만 1954년 복원

- 황성은 궁성을 한 겹 더 둘러싼 성으로 축성 시기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태조가 궁궐을 창건할 때 궁궐을 보호할 목적으로 쌓았거나 광종 11년에 개성의 이름을 황도(皇都)로 고치고 독자적인 연호인 광덕(光德), 준풍(峻豊)을 쓰며 스스로를 황제로 칭했을 때 새로 쌓아 황성이라 칭했을 것으로 보임



개성 성곽의 구성. 밖에서부터 외성(나성) · 내성(반월성) · 궁성 · 황성 등 4중으로 궁성을 보호하고 있다. 이는 '천자국'을 지향하였던 고려인들의 세계관이 반영된 것이다.



- **동북아의 균형자 고려 : 개경 나성**



- 송나라 사신인 서긍이 고려에 왔을 때는 이미 나성이 축성된 뒤였으므로 개경은 궁성·황성·나성을 모두 갖춘 도시(『고려도경』)

- 고려는 둘레 2,600칸에 성문 20개를 설치한 황성을 갖추고 그 안에 여러 관청과 궁궐을 배치하여 고구려의 장안성에서 궁궐을 내성·중성·외성 3겹으로 두른 형식을 계승

- 당의 장안성 이래로 새로 정립된 형식과 제도를 따라서 궁성을 중심으로 남쪽에는 관청, 동쪽에는 동궁, 서쪽에는 왕과 왕비의 침전, 북쪽에는 후원을 배치

- **동북아의 균형자 고려 : 개경 나성**

개경 첨성대

- 고려 개경에도 첨성대가 설칭되었음
- 5,000여 개의 천문 관측 기록 존재
- 임금은 하늘을 대신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금이 되면 하늘을 관측해 사계절의 변화를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일이 매우 중요



경주월성지구 : 왕족들의 놀이터와 천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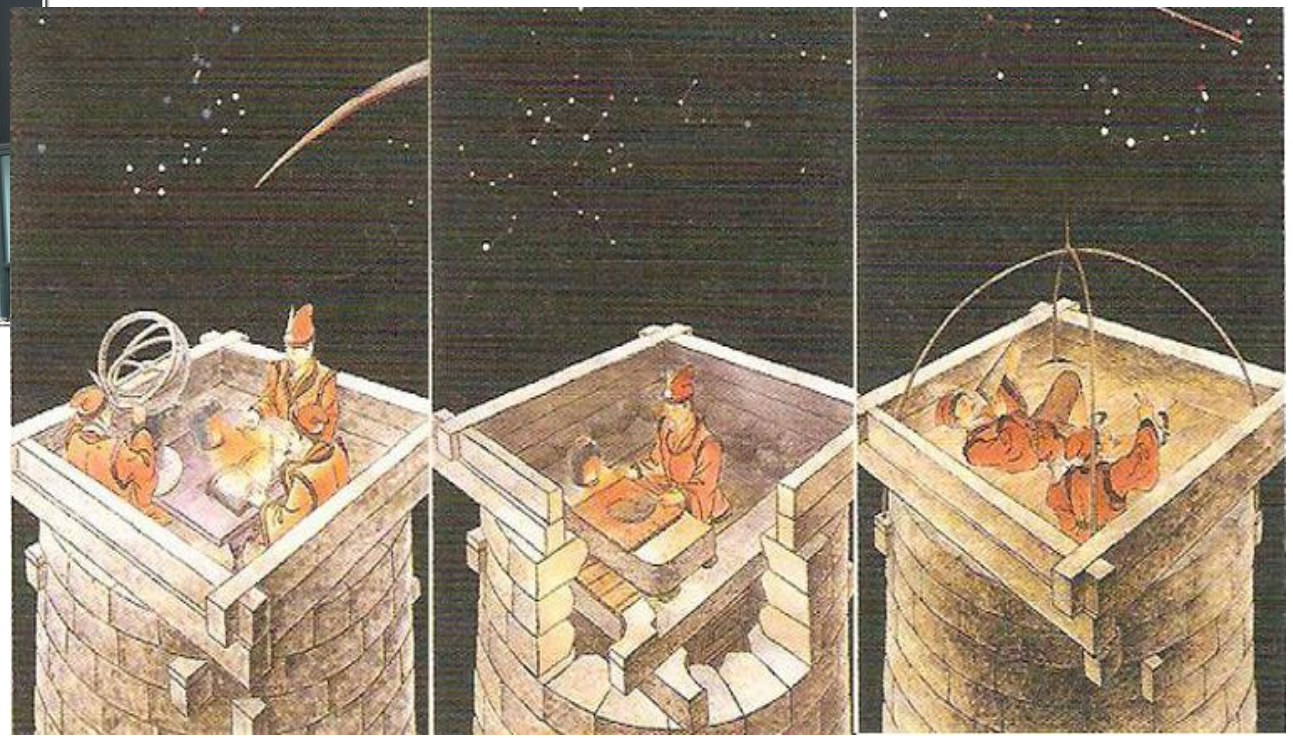
- 첨성대는 천문대일까?? 瞻星 : 별을 우러러 보다!!!!!



경주월성지구 : 왕족들의 놀이터와 천문대

- 첨성대는 천문대일까?? 瞻星 : 별을 우러러 보다!!!!!





경주월성지구 : 왕족들의 놀이터와 천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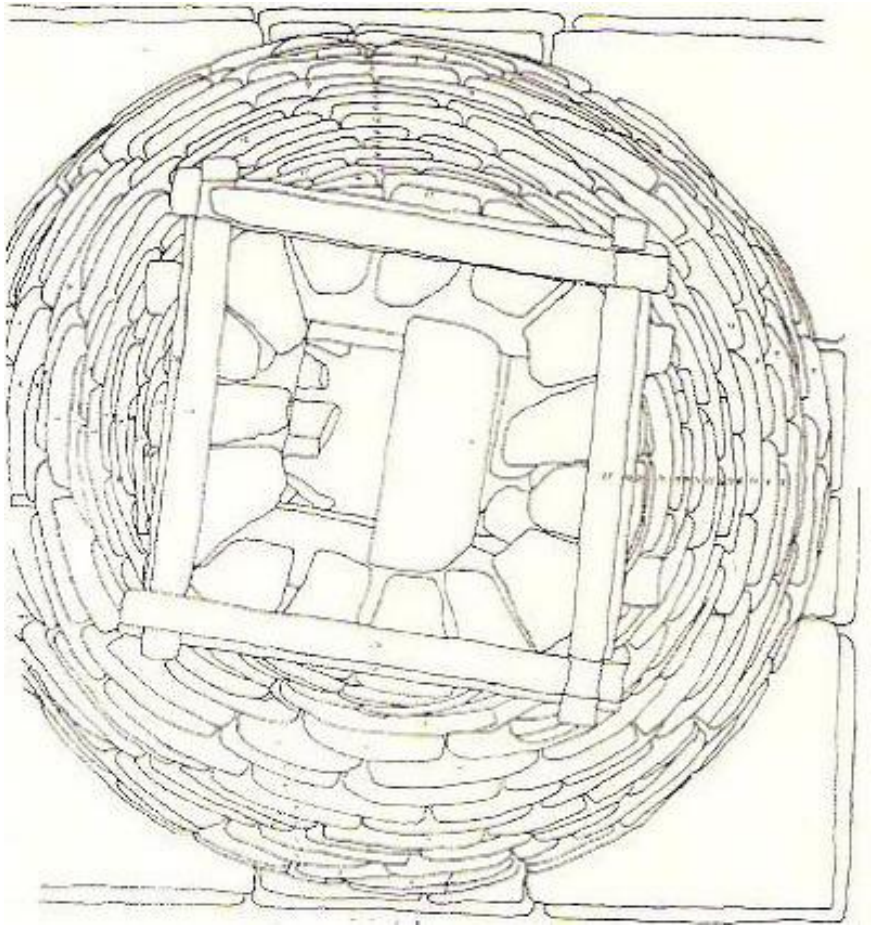
- 첨성대는 천문대일까?? 瞻星 : 별을 우러러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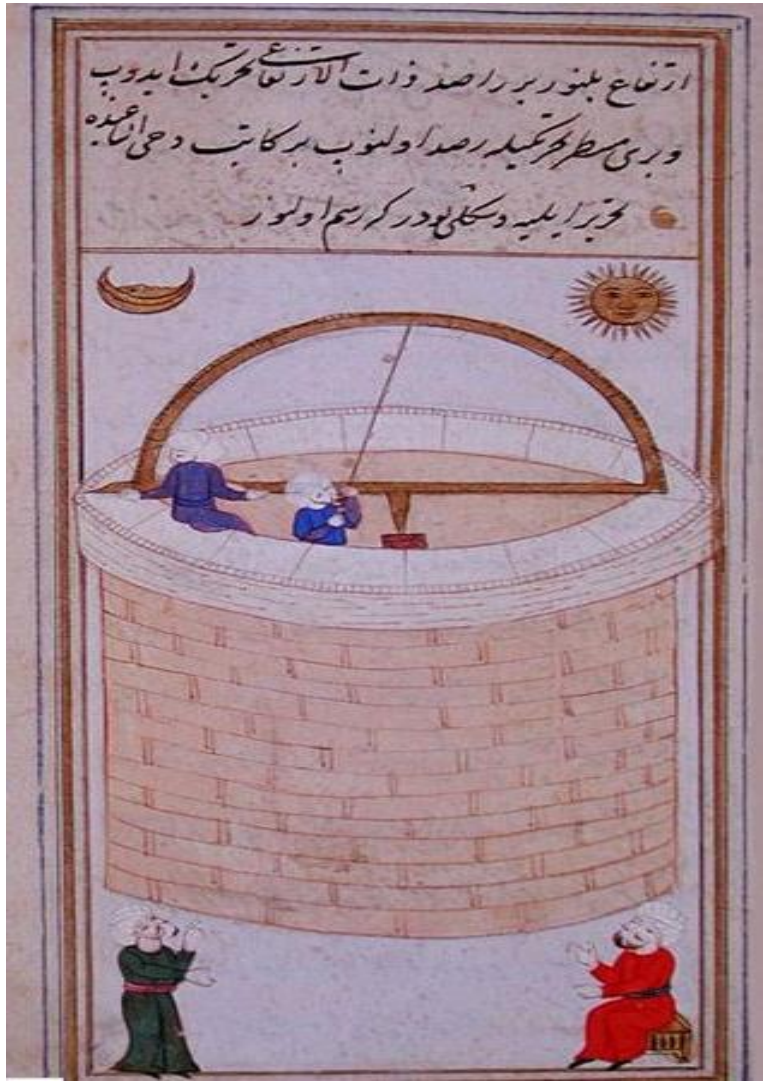




경주월성지구 : 왕족들의 놀이터와 천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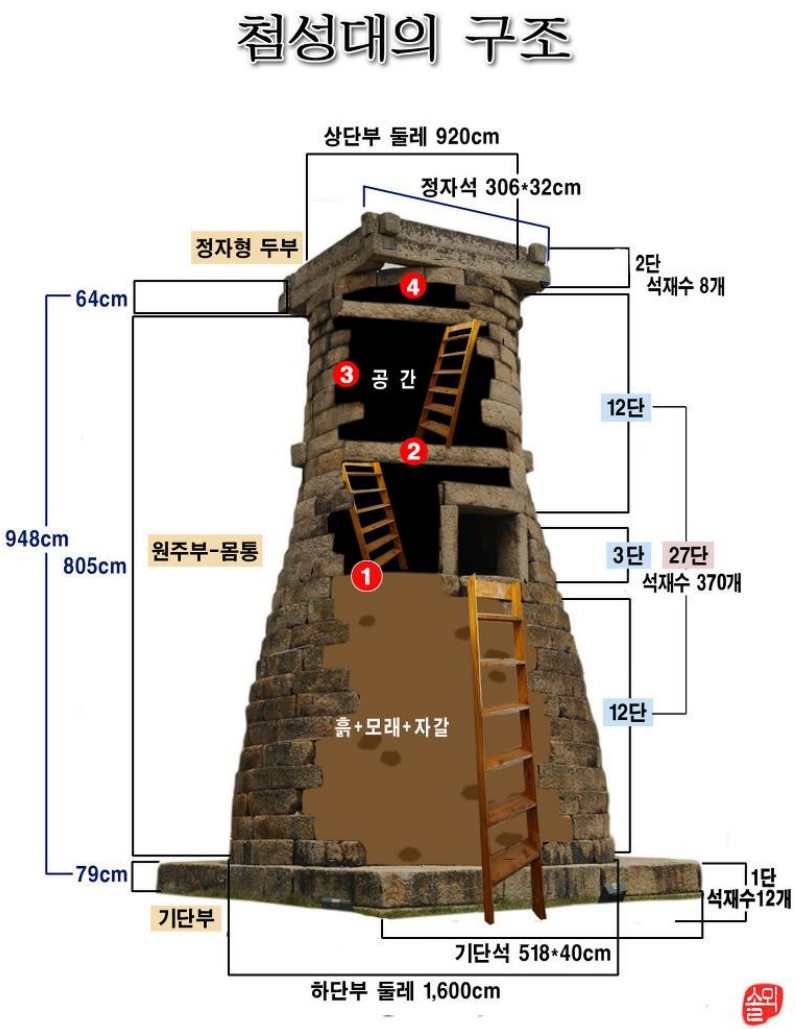
- 첨성대는 천문대일까?? 瞻星 : 별을 우러러 보다!!!!!





경주월성지구 : 왕족들의 놀이터와 천문대

- 첨성대는 천문대일까?? 瞻星 : 별을 우러러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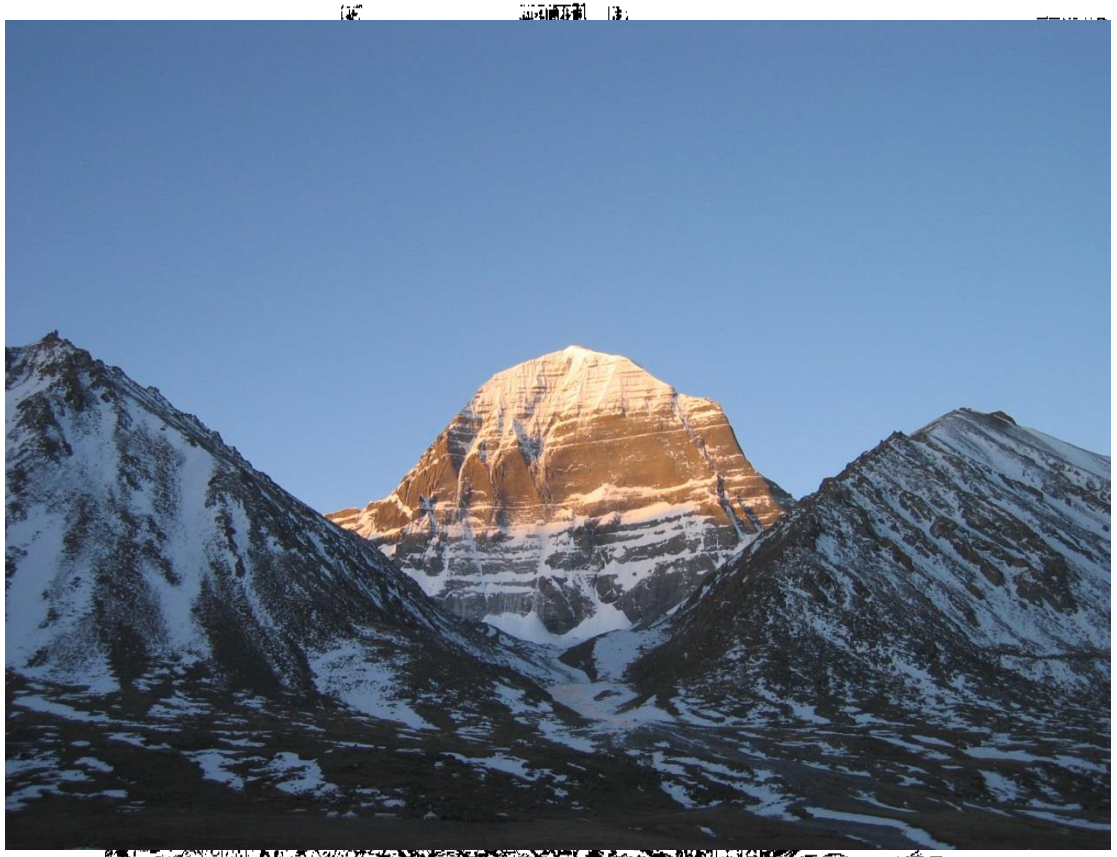


* 첨성대의 상징성

- 27단 : 선덕왕(27대왕)
- 정자석 포함 28단 : 28수의 기본 별자리
- 정자석 기단 포함 29단 : 음력 1달
- 중앙창문까지 12단, 이후 12단 : 1년 12개월과 24절기
- 석재 370개는 1년 365일 상징
- 기단석 동서남북 정방향
- 정자석은 8방위
- 창문은 정남향 : 춘분, 하지, 추분, 동지 관측

경주월성지구 : 왕족들의 놀이터와 천문대

- 첨성대는 천문대일까?? 瞻星 : 별을 우러러 보다!!!!!





*

-

"

-

가장 성스러운 신

던 제단



조선의 궁궐 : 한양 도성과 궁궐들

우리 관념의 영원한 수도, 한양(서울)

- 국호 – 조선

  - 고조선을 계승한다는 조선과 이성계의 고향인 화령 중 명나라와 상의하여 조선으로 결정(기자조선을 계승, 위만조선은 찬탈자이므로 계승가치가 없다고 믿음)

- 새로운 수도를 찾기위한 물색작업 실시
  - 계룡산, 무악(신촌)등의 후보지 중 한양으로 결정

- 한양은 고려시대에도 명당으로 인식, 천도 추진, 하지만 한양은 木子가 왕이 된다는 민간 속설에 포기

조선의 궁궐 : 한양 도성과 궁궐들

우리 관념의 영원한 수도, 한양(서울)

1392년 조선 건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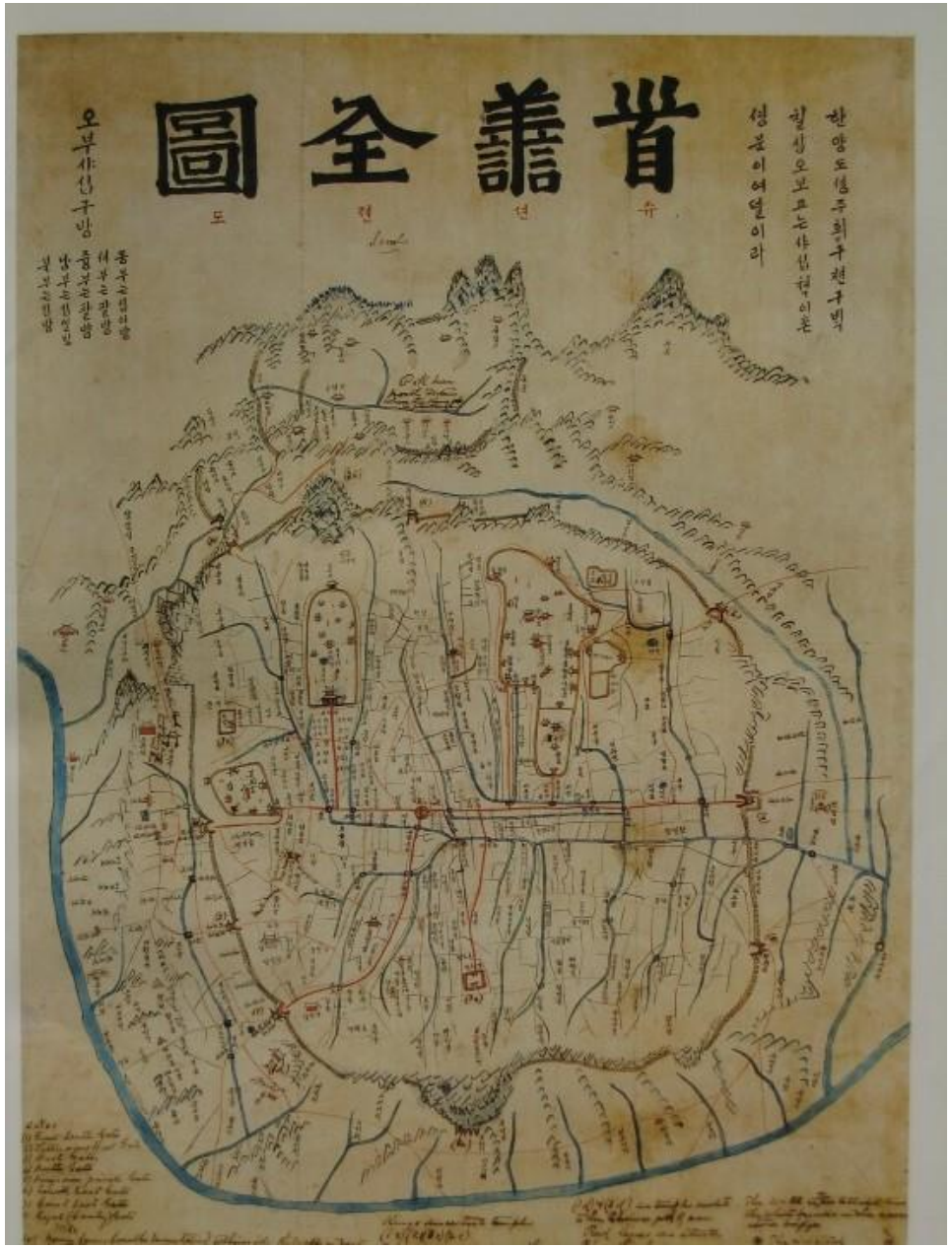
1394년 한양으로 천도

1395년 경복궁, 종묘 완공

1398년 숭례문 완공

1399년 한성에서 개성으로 다시 천도

1405년 한양으로 재천도, 창덕궁 창건



조선의 궁궐 : 한양 도성과 궁궐들

우리 관념의 영원한 수도, 한양(서울)

- 한양 천도
- 한양은 대표적인 풍수 명당.
- 외사산과 내사산
- 명당수 : 내사산 내부의 평지에 흐르는 물 : 청계천
- 오방과 사대문 : 인의예지신 = 동서남북중 / 흥인지문·돈의문·숭례문·숙정문
- **종묘 :** 역대 왕과 왕비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유교의 핵심 원리인 '충'과 '효'를 실천하는 장소
- **사직** : 유교 문화의 경제적 기반인 농업과 관련된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

조선의 궁궐 : 한양 도성과 궁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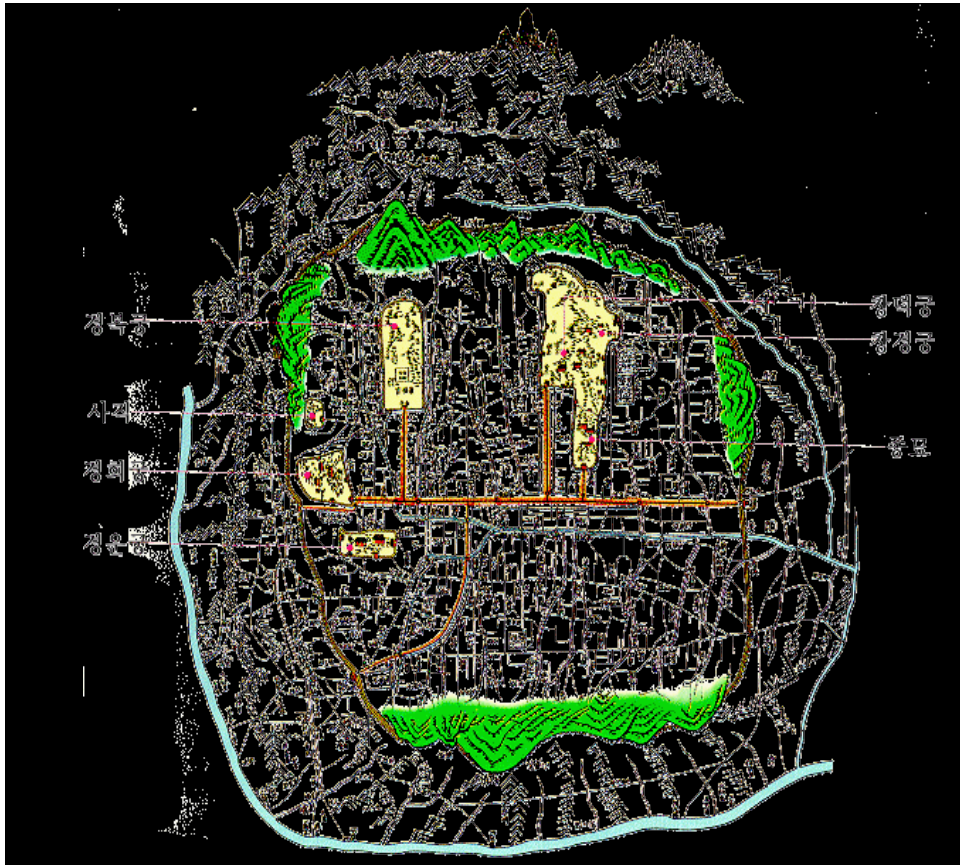
우리 관념의 영원한 수도, 한양(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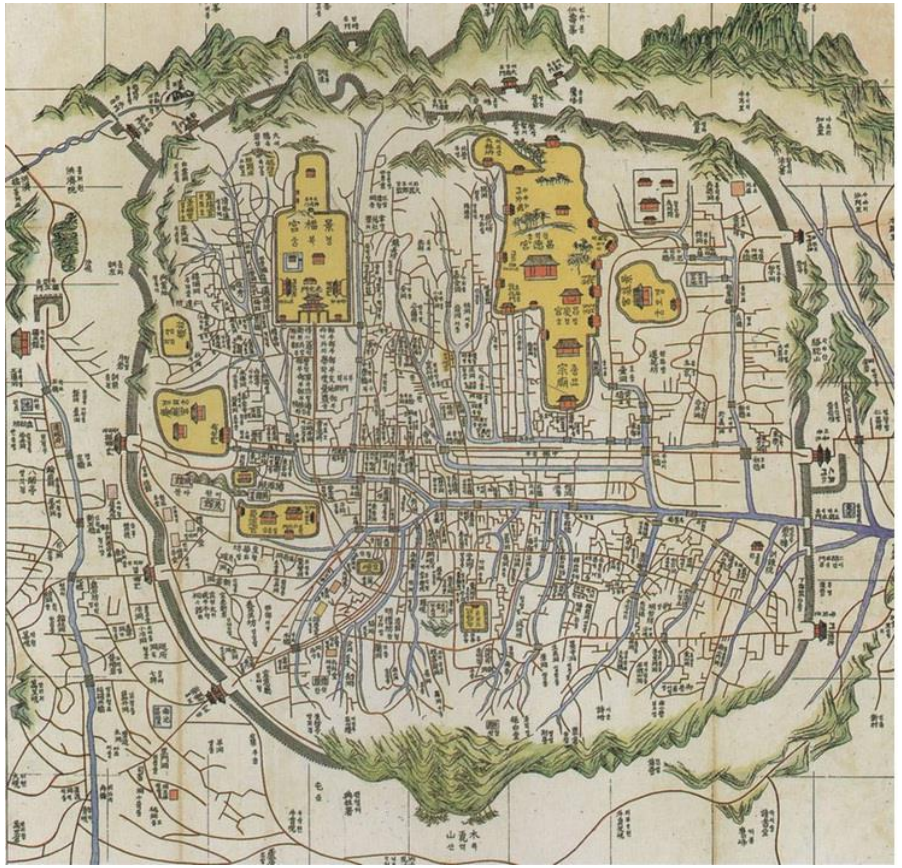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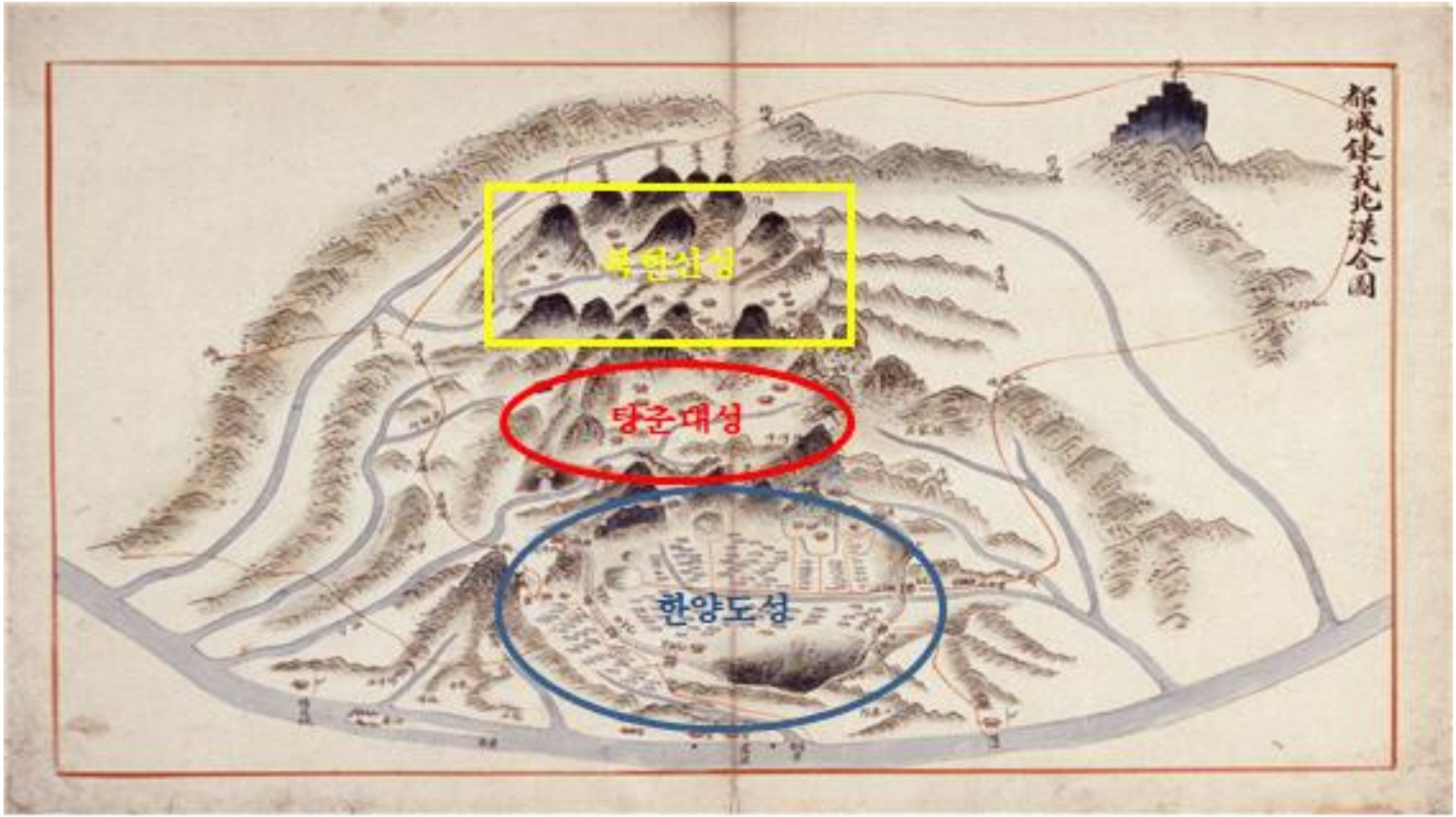


조선의 궁궐 : 한양 도성과 궁궐들

우리 관념의 영원한 수도, 한양(서울)






북한산성
탕춘대성
한양도성

태조 때의



1396년 1
차례 공사를
마무리하였
성, 평지는
다. 성돌은
게 다듬어









도성 축조
(1800~)



60cm 가량
을 정교하게
렸다. 각자
있다. 이로
보다 더 견

조선의 궁궐 : 한양 도성과 궁궐들

우리 관념의 영원한 수도, 한양(서울)

궁궐, 통치의 공간 들여다보기

- 궁궐 – 왕조사회에서 제도완비의 상징 / 국왕의 거주 및 통치행위가 이루어지는 곳
- 조선최초의 법궁 – 경복궁
- 경복궁에 이어 離宮으로 창덕궁 조성 : 법궁과 이궁 양궐체제
- 수강궁(창경궁) – 상왕 태종을 위한 궁궐
- 임진왜란 이후 창덕궁이 법궁 구실을 함

조선의 궁궐 : 한양 도성과 궁궐들

우리 관념의 영원한 수도, 한양(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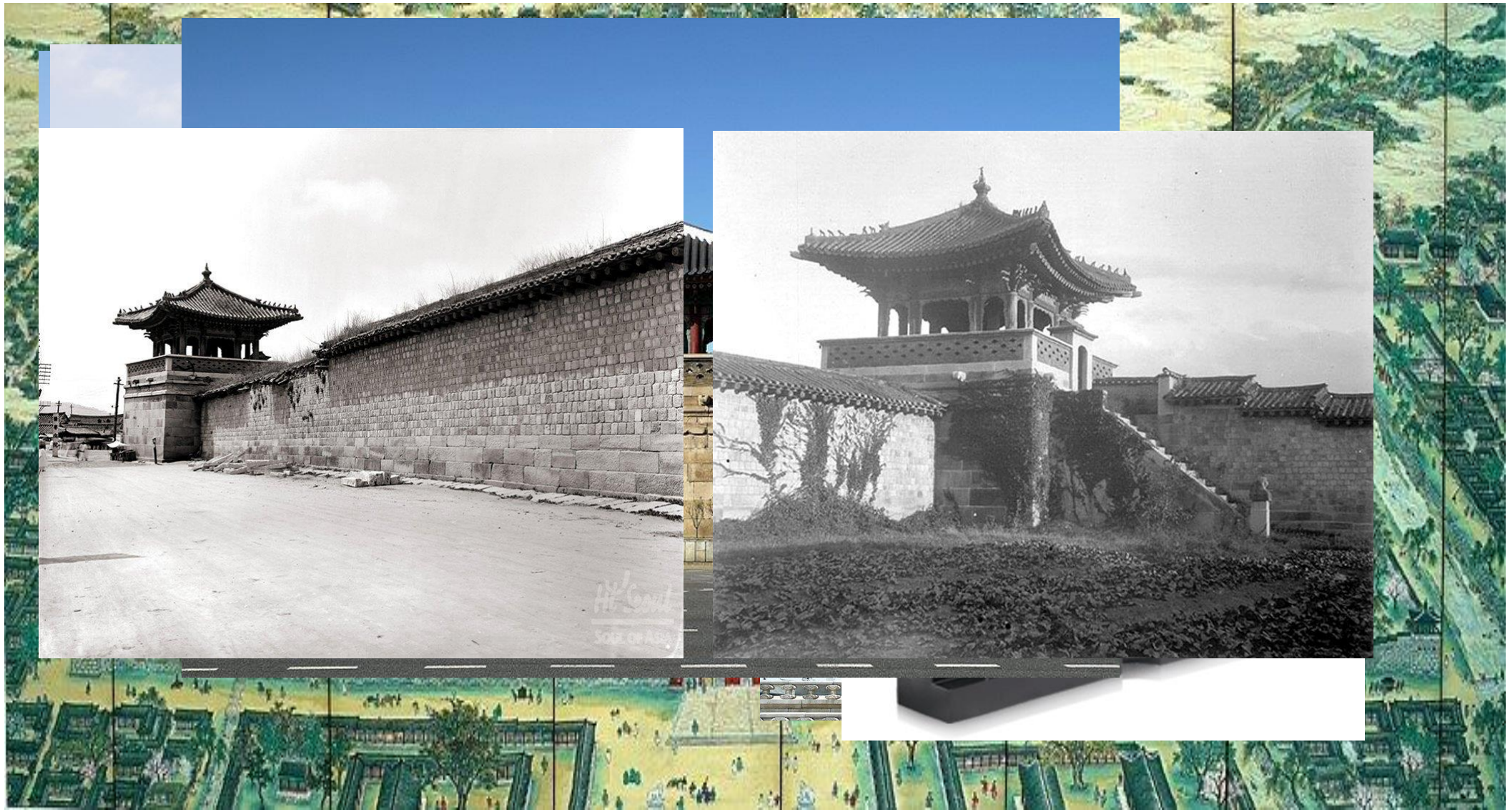
景福宮 – 조선의 정궁, 북궐(北闕) / 昌德宮

/ 昌慶宮 – 왕비와 왕자들을 위한 궁전, 창덕궁과 함께 동궐(東闕)로 불림.

慶熙宮 – 광해군 때 건립(慶德宮), 서궐(西闕) / 德壽宮 – 월산대군의 사저, 임란 이후 행궁으로(慶運宮)

조선의 궁궐 : 한양 도성과 궁궐들

우리 관념의 영원한 수도, 한양(서울)



동 궐 도



- 1997년 세계유산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세계유산으로 등록
- <평가> - 동아시아 궁전 건축사에 있어 비정형적 조형미를 간직한 대표적 궁으로 주변 자연환경과의 완벽한 조화와 배치가 탁월하다.
- <적용항목>

  - 제2항 – 건축, 예술, 도시계획, 디자인 등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류가치의 중요한 교류현상을 보여주는 유산.

  - 제3항 – 고대문명 또는 문화적 전통에 관한 독특하고 탁월한 증거가 되는 유산

  - 제4항 – 인류역사의 발달단계를 보여주는 건축물 또는 조경

돈 화 문





진 선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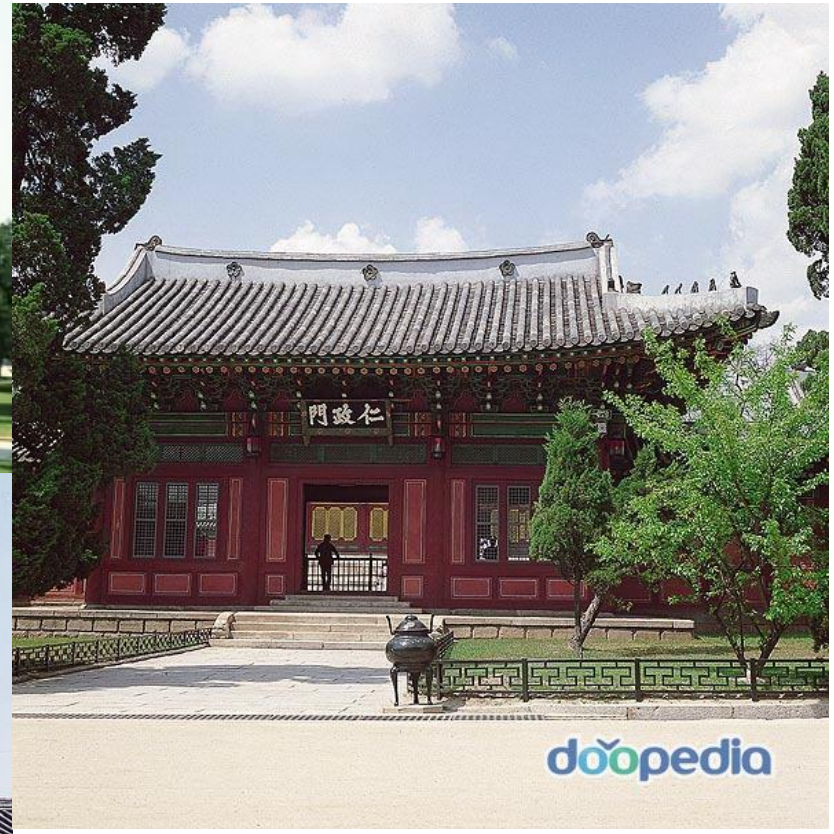




인 정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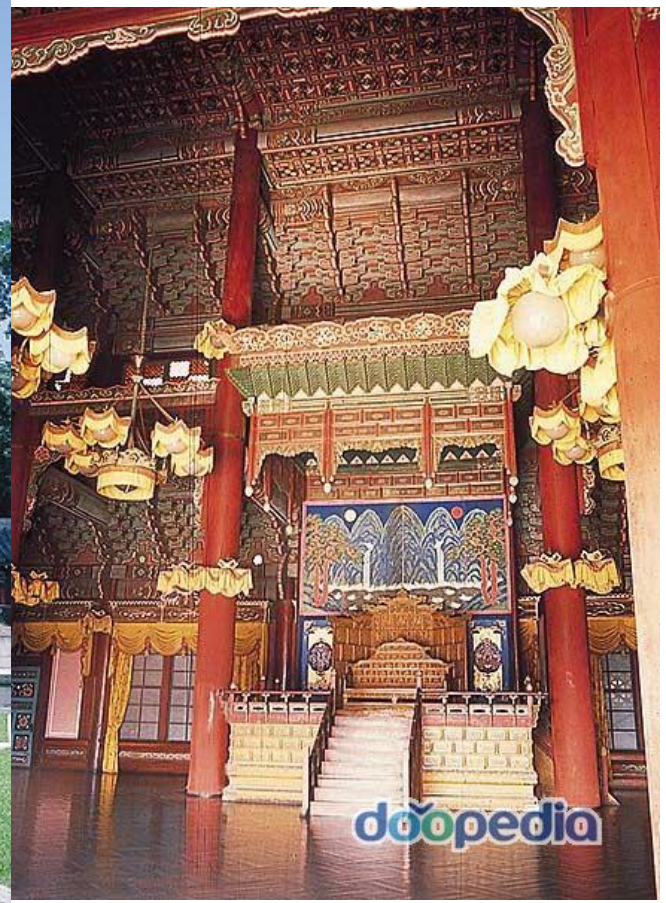






인 정 전





인 정 전







선 정 전





희 정 당





대 조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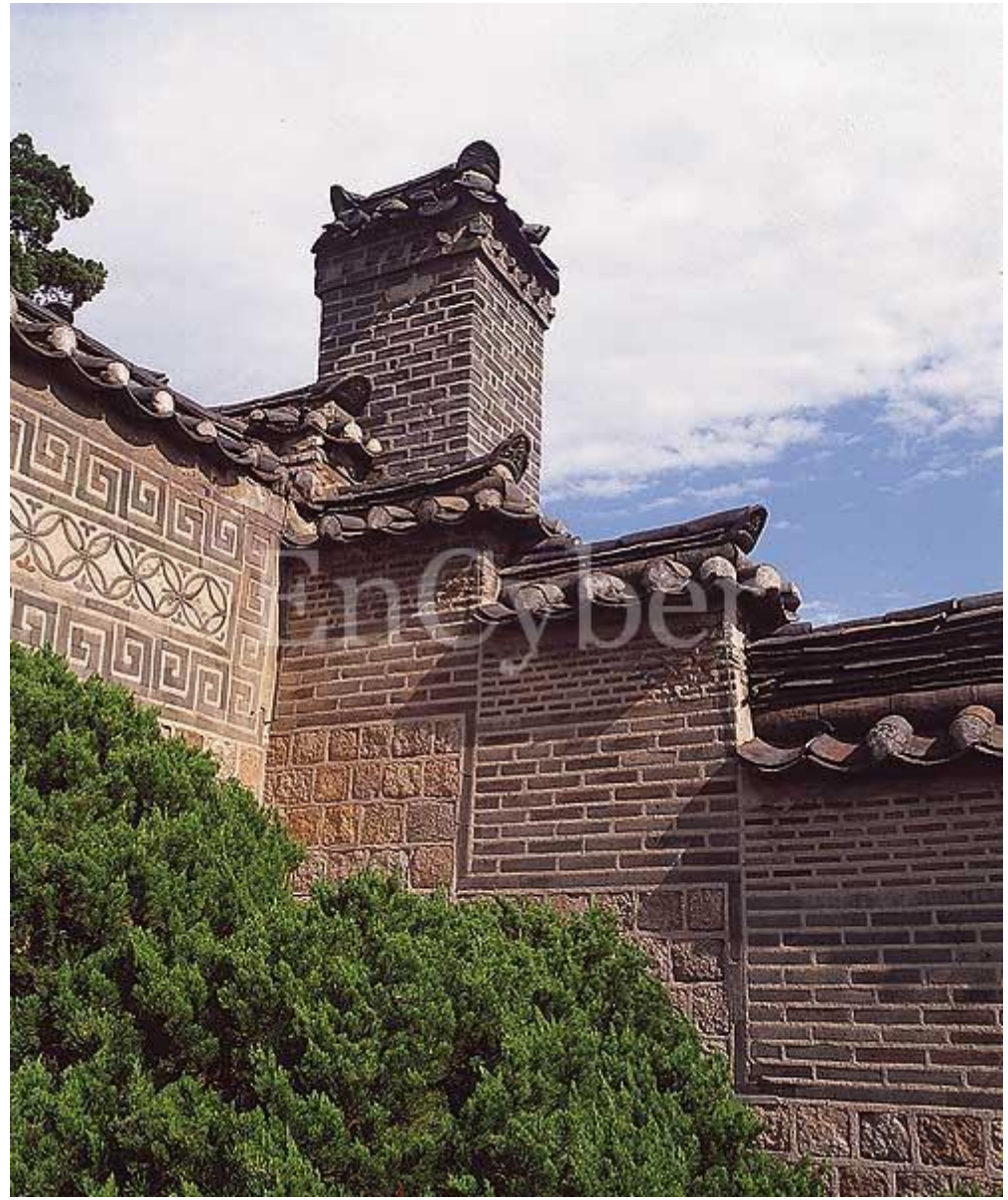
낙 선 재

- 원래는 창경궁에 속한 건물
- 헌종 13년(1847년) 건립 – 국상을 당한 왕후와 후궁들의 거처
- 1800년대 중반의 살림집 모습을 보여준다.
- 최후의 왕녀 이방자 여사가 최후까지 거처하던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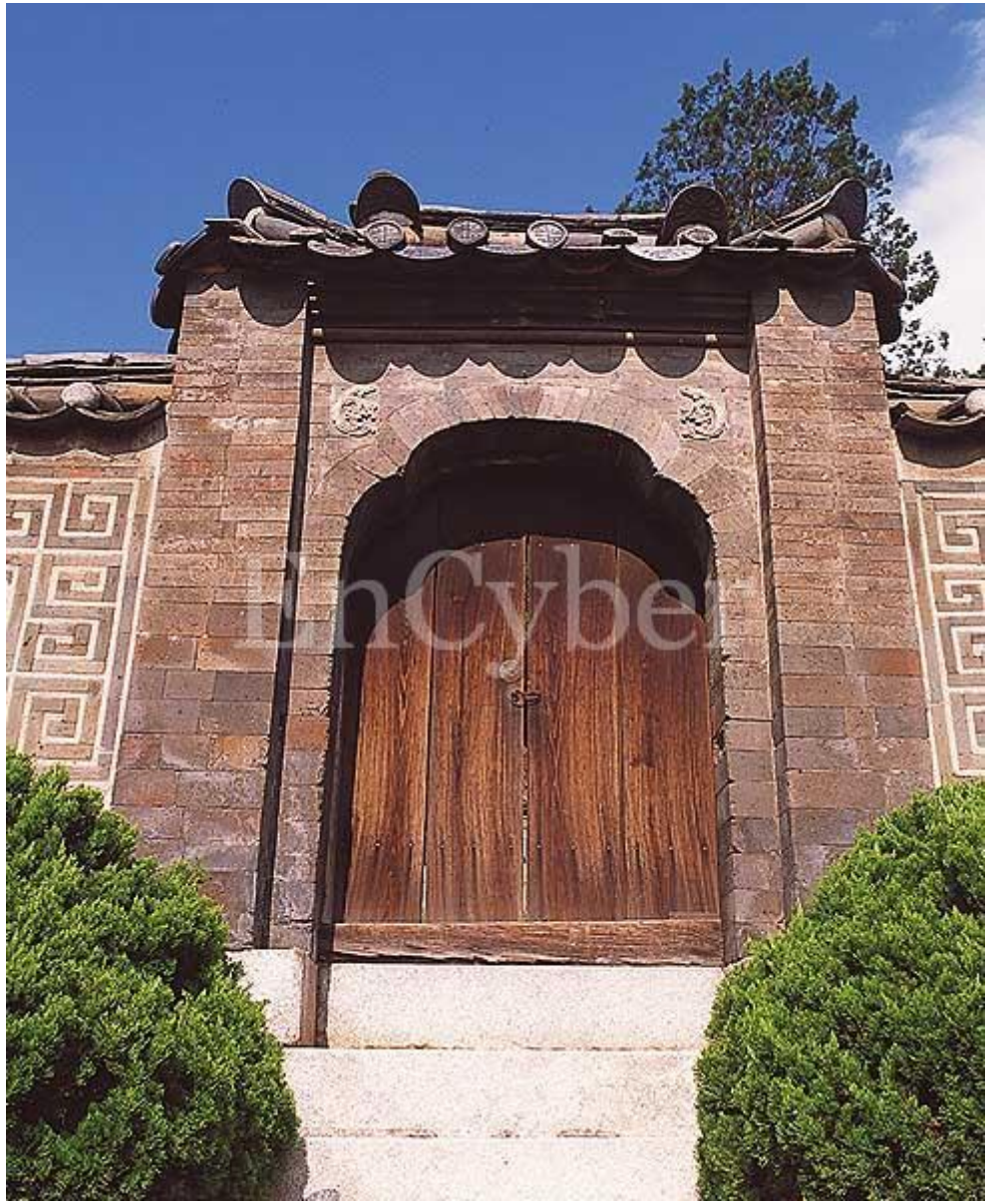

doopedia








www.encyber.com
Copyright ©Doosan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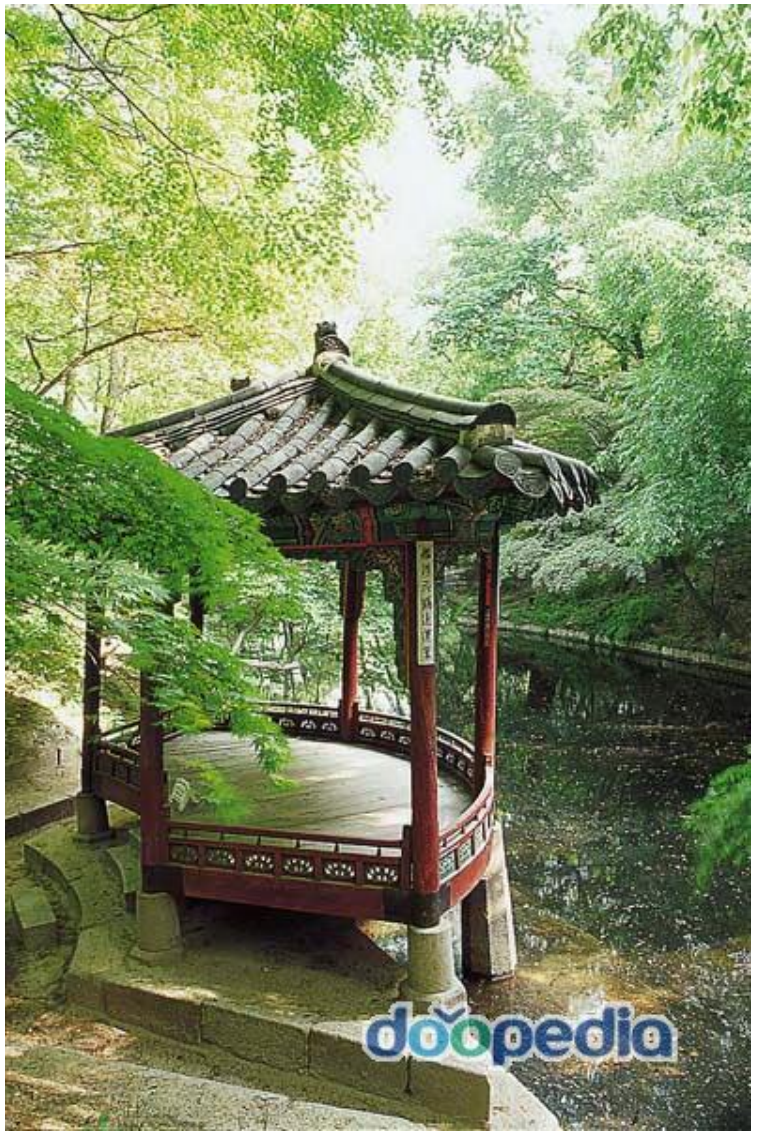




후 원

- 우리나라 정원건축의 대표작 - 면적 약 9만여평
- 後苑, 秘苑, 禁苑, 上林苑, 上林 등
- 17개 동의 정자
- 부용지, 애련지, 반월지, 몽답지, 빙옥지, 방지 등 연못
- 160여종 297,000여주의 식물
- 천연기념물 194호 다래나무, 251호 향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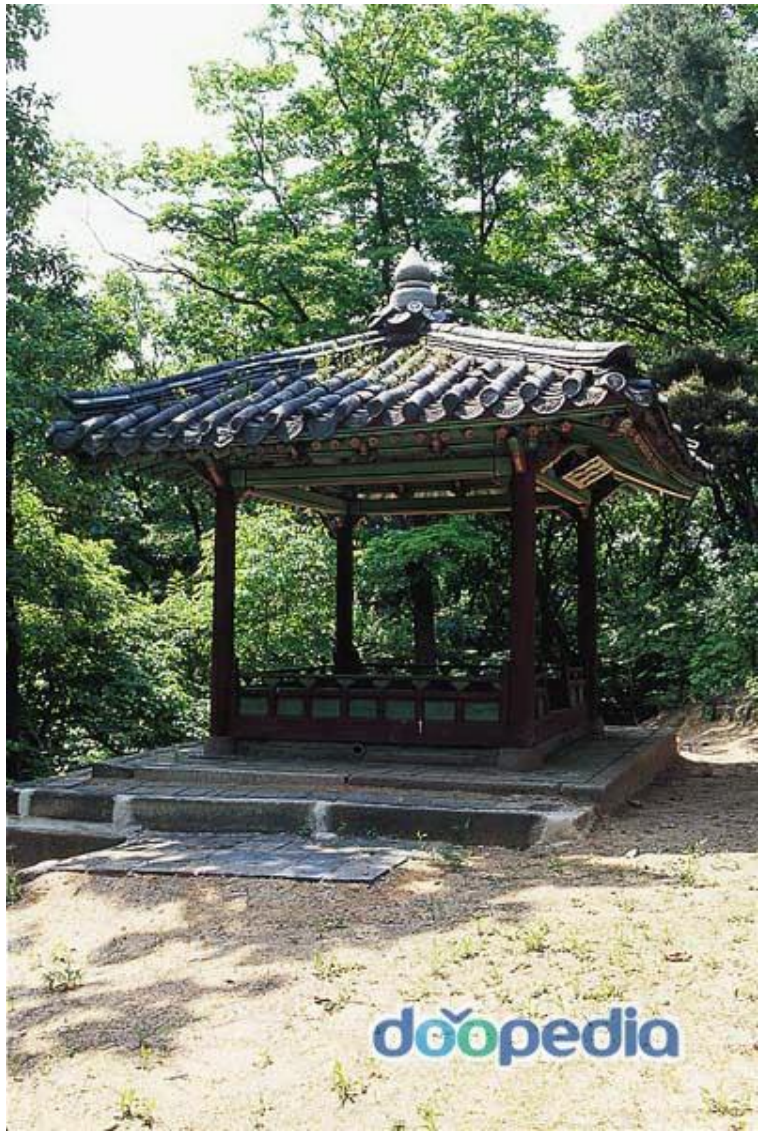
관 람 정



농 수 정



능 허 정



반 도 지



기호헌과 의두각



의 두 각



부 용 정



부 용 정



부 용 정



연 경 당



연 경 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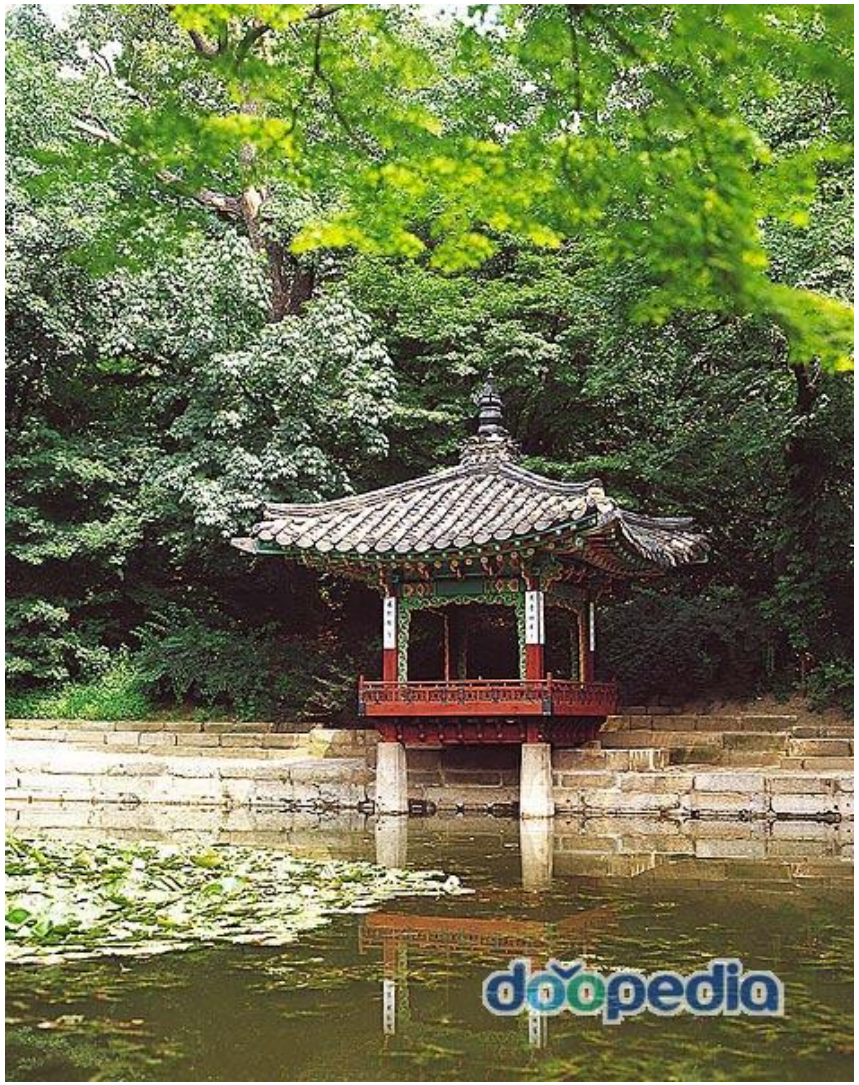
영 화 당



주 합 루



애 련 정



청 의 정



창덕궁의 봄 여름 가을 겨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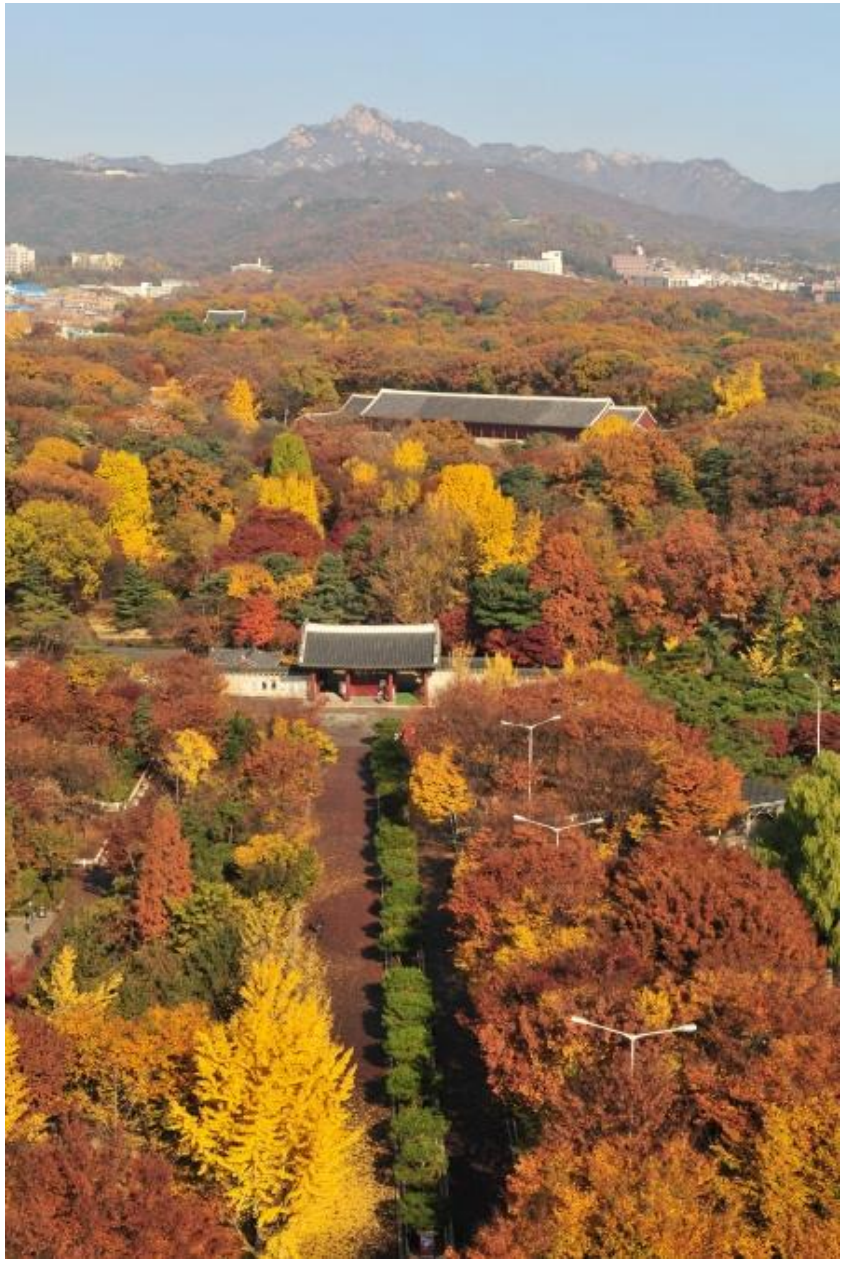




동양의 파르테논 신전

- 종묘는 역대 왕들의 위패를 모신 곳
- 종묘는 역대 임금과 왕비들의 신주를 모셔 놓고 국가적인 제사를 지내는 곳
- 초월적 신을 인정하지 않는 유교에서 조상신은 중요한 숭배 대상이고, 특히 한 나라의 최고 인격체인 역대 왕들을 모신 종묘는 최고의 사당 건축이요, 가장 숭고한 신전
- 종묘와 사직 – 왕궁 - 성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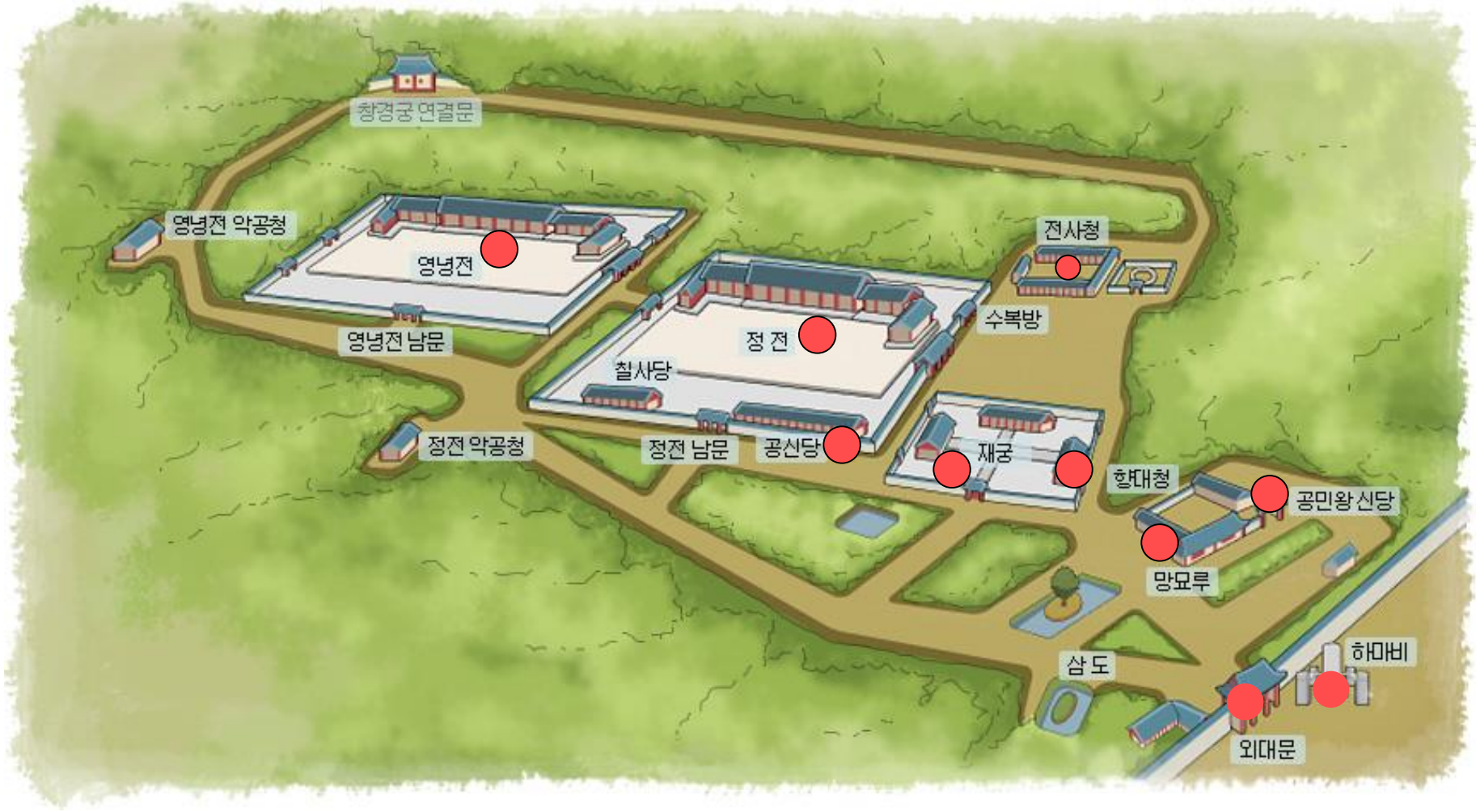








대략적인 건물 소개


창경궁 연결문
영녕전 악공청
영녕전
영녕전 남문
정 전
칠사당
정전 악공청
정전 남문
공신당
전사청
수복방
재궁
향대청
공민왕 신당
망묘루
삼 도
하마비
외대문

하마비



외대문



공민왕 신당



망묘루



재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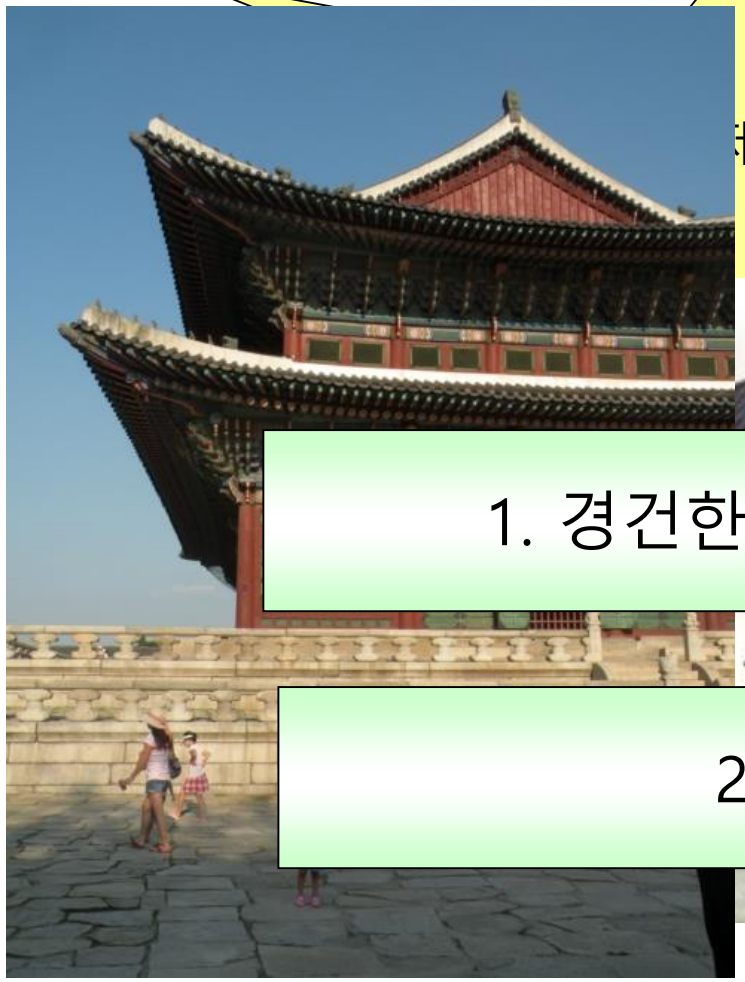
정전



영녕전



다른 건축물과 비교되는 특징
- 지붕





제외하고 모두 맞배지붕

1. 경건한 느낌을 주기 위해

2. 증축 용이

다른 건축물과 비교되는 특징
- 단청





종묘 봉안 원칙

- "5세가 지난 왕은 원칙적으로 정전에서 영녕전으로 신위를 모셔 봉안한다. 그러나 태종이나 세종과 같이 공덕이 뛰어난 선왕의 위패는 옮기지 않고 영구히 정전에 봉안한다."
- "덕종이나 장조와 같이 실제 보위에는 오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세자들도 추존하여 왕으로 봉안하여 영녕전에 봉안한다. 그리고 정전 내 가장 서쪽에서부터 선왕의 순으로 신위를 모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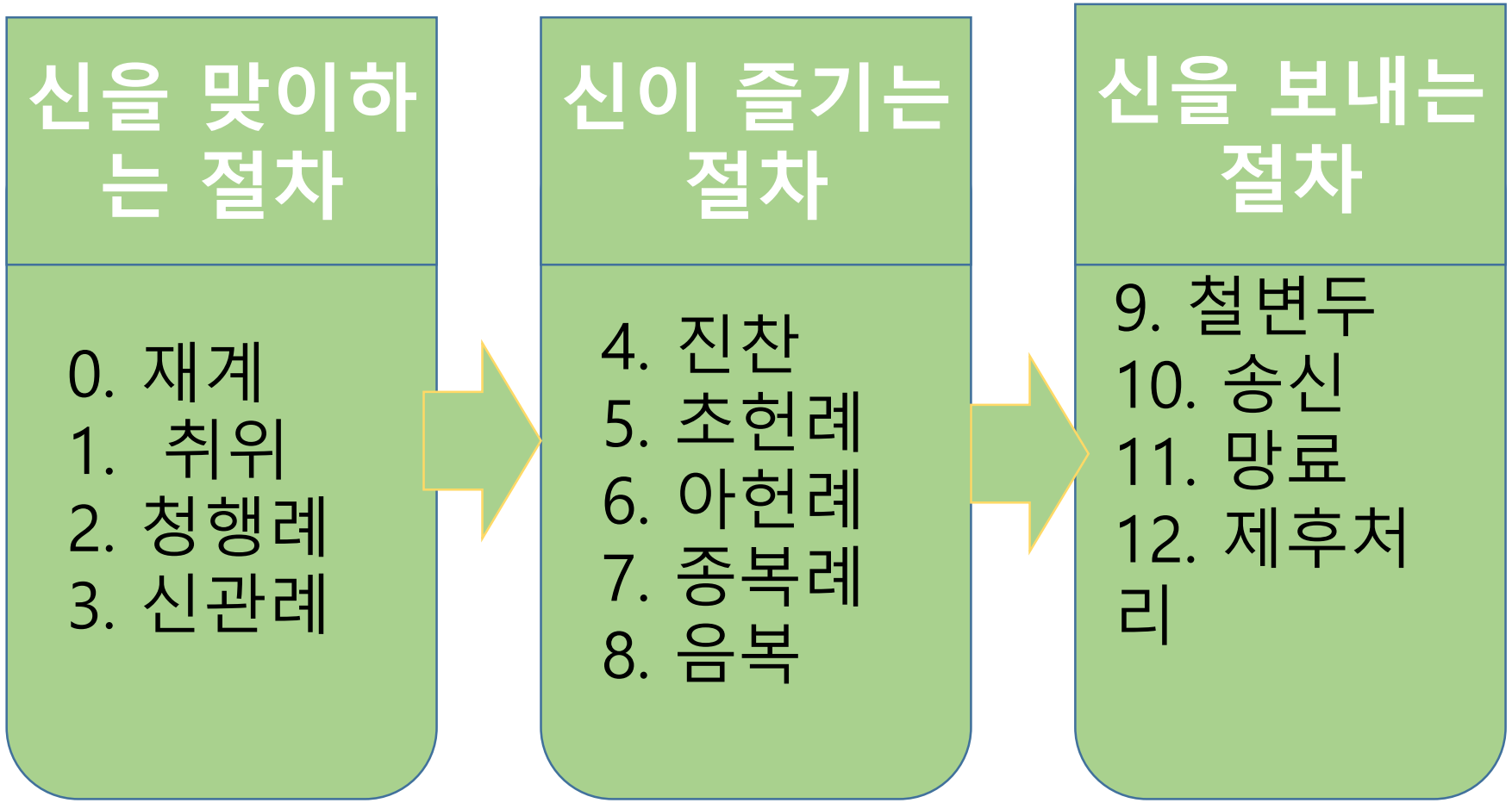
- 1995년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 제4조 : 가장 특징적인 사례의 건축양식으로서 중요한 문화적, 사회적, 예술적, 과학적 혹은 산업의 발전을 대표하는 양식

→ 종묘는 제왕을 기리는 유교사당의 표본으로서 16세기 이래로 원형이 보존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독특한 건축양식을 지닌 의례공간이다. 종묘에서는 의례와 음악과 무용이 잘 조화된 전통의식과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종묘제례

- 조선시대 역대의 왕과 왕비 및 추존된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시는 종묘의 제향의식. 종묘대제라고도 불림.
- 2001년 5월 18일 종묘제례악과 함께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선정되어 세계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제례절차


신을 맞이하는 절차
0. 재계
1. 취위
2. 청행례
3. 신관례
신이 즐기는 절차
4. 진찬
5. 초헌례
6. 아헌례
7. 종복례
8. 음복
신을 보내는 절차
9. 철변두
10. 송신
11. 망료
12. 제후처리

신을 맞이하는 절차

- 0. 재계 - 제를 올리기 전에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함
- 1. 취위 - 제관들이 정해진 자리에 섬
- 2. 청행례 - 신주를 내고 제례를 시작함
- 3. 신관례 - 신을 맞이하는 예 (상향, 관창, 전폐)

신이 즐기는 절차

- 1. 진찬 - 제상에 제물을 진설
- 2. 천조례 - 신의 자리를 정화
- 3. 초헌례 - 첫번째 술잔을 올리는 예
- 4. 아헌례 - 두번째 술잔을 올리는 예
- 5. 종헌례 - 세번째 술잔을 올리는 예

신을 보내는 절차

- 1. 음복- 신이 주는 복을 받음
- 2. 철변두- 제물을 거두어 들임
- 3. 송신- 신을 보내는 예
- 4. 망료- 축문과 폐를 태움
- 5. 제후처리

종묘제례악

- 조선 역대 군왕의 신위를 모시는 종묘와 영녕전의 제향에 쓰이는 음악
- 기악(樂), 노래(歌), 무용(舞)를 통틀어 지칭
- 세종시대에 중국식 음악을 한국식으로 변형, 새롭게 창조
- 보태평 11곡, 정대업 15곡으로 이루어짐
- https://www.youtube.com/watch?v=D-1-4eLjzhE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유

- **종묘제례**는 중국 하, 은, 주 시대의 의례문화에 기원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동양 고대 문화의 특징과 의의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기 때문
- **종묘제례악**은 제작 당시의 모습을 악보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곡이며, 옛 궁중음악의 형식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음

대릉원지구 – 왕을 기리는 거대한 무덤과 보물

- 미추왕릉, 황남리 고분군, 노동리 고분군, 노서리 고분군, 오릉, 동부사적지대, 재매정(김유신의 집에 있던 우물이 남아 있는 곳)
- 신라의 왕릉 56기 - 왕의 이름을 아는 능 38기
- 왕릉이 커진 시기 - 김씨가 왕권 독점(이사금-마립간)
- 금관총 - 금관 - 시베리아로부터 오지 않았나. 시베리아의 샤먼 - 김씨의 북방 이주설
- 천마총 - 기린이라는 주장
- 무덤 양식 - 돌무지덧널 무덤(적석목곽분) - 시베리아에서 찾아볼 수 있음



토용(土俑)
경주 용강동 무덤, 8세기, 높이(왼쪽) 14.5cm





돌무지무덤(적석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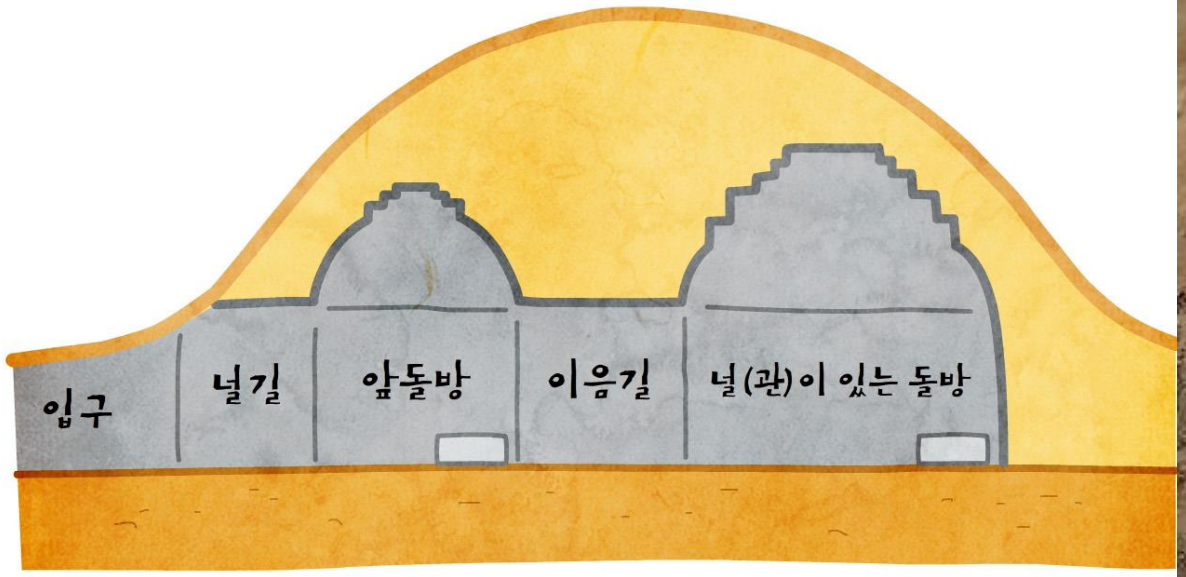
고구려의 장군총과 백제의 석촌동 고분이 대표적





돌무지무덤(적석총)

고구려의 장군총과 백제의 석촌동 고분이 대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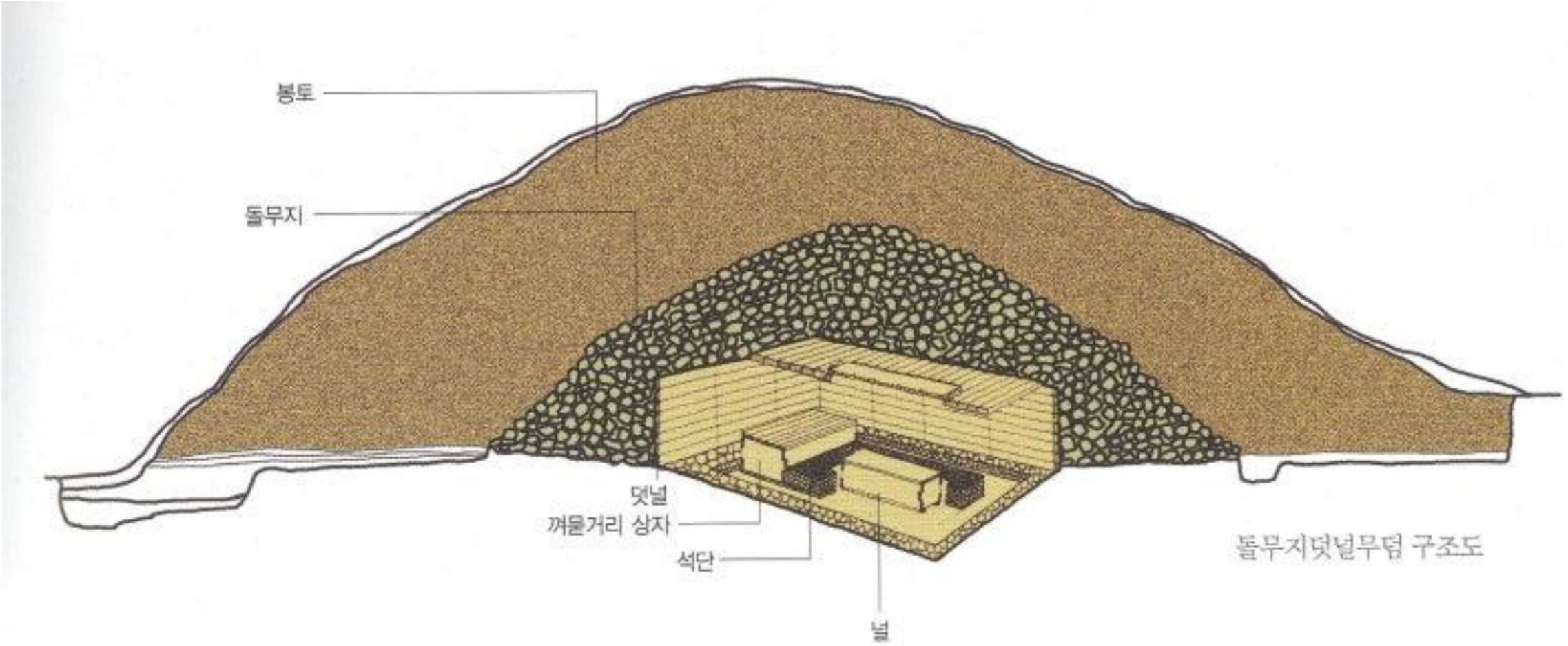
굴식 돌방무덤의 구조



굴식 돌방무덤(횡형석실분)

부여 능산리 고분군이 대표적

대릉원지구 – 왕을 기리는 거대한 무덤과 보물



돌무지덧널무덤 구조도

대릉원지구 – 왕을 기리는 거대한 무덤과 보물

노동리 고분군(사적 제 38호)



- 경주 중심부인 노동동 일대에 자리하고 있는 고신라시대 무덤들
- 봉황대·식리총·금령총 등이 포함

대릉원지구 – 왕을 기리는 거대한 무덤과 보물

황남리 고분군(사적 제40호)



- 경주시내 평지 무덤들 가운데 서남쪽에 있음
- 여러 가지 형식의 무덤이 섞여 있음
- 신라 무덤 양식 연구에 중요한 자료

대릉







자리

알 수

조 선 왕 릉

- 27대 519년의 역사 – 왕과 왕비, 추존왕과 왕비의 무덤
- 陵, 園, 墓
- 현재 왕릉 40기, 원 13기 남아있음.







- 개성시
  - 제릉 – 태조왕비 (신의왕후)
  - 후릉 – 정종
- 경기도 여주
  - 영릉 – 세종, 효종
- 강원도 영월
  - 장릉 – 단종

<해당 등재기준>

- 제3조 : 문화적 전통 또는 살아있거나 소멸된 문명에 관한 독보적이고 특출한 증거

→ 조선왕조 특유의 세계관, 종교관 및 자연관에 의해 타 유교문화권 왕릉들과 다른 자연친화적인 독특한 장묘문화를 보여준다.

- 제4조 : 인류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보여주는 건축물의 유형, 건축적 또는 기술적 총체 또는 경관의 탁월한 사례

→ 500년 이상 지속하여 만들어진 조선왕릉은 당대의 시대적 사상과 정치사, 예술관이 압축적으로 나타나 있으며 공간구성과 건축물과 석물 등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독창성이 뛰어나다.

- 제6조 : 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을 보유한 사건 또는 살아있는 전통, 사상, 신념, 예술적 문화적 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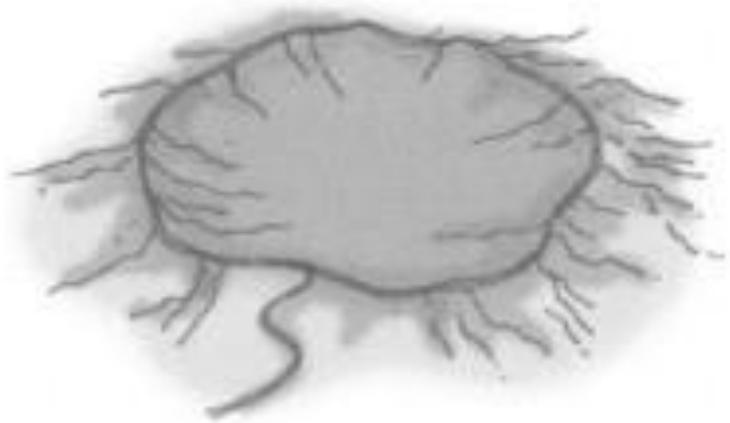
  → 국가제례가 정기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왕의 신위를 모시고 제례를 지내기 위한 공간인 종묘가 설립되어 조상숭배의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다.



조선 7대 세조의 광릉. 세조는 자신의 능 조영에 대해 상세한 유언을 남겼다.

- 조선왕릉의 조형 예술적 가치 – 단순하면서도 절제된 건축형태
- 풍수 이론에 대한 고유한 해석 – 자연지형을 최대한 살리면서 그 조건에 구조물을 맞추어 나가는 자연친화적 방식
- 조선왕릉과 함께 하는 기록문화 – 산릉도감의궤
- 6백년을 이어온 왕실의 제례 – 조선왕조의 무형적인 문화전통 계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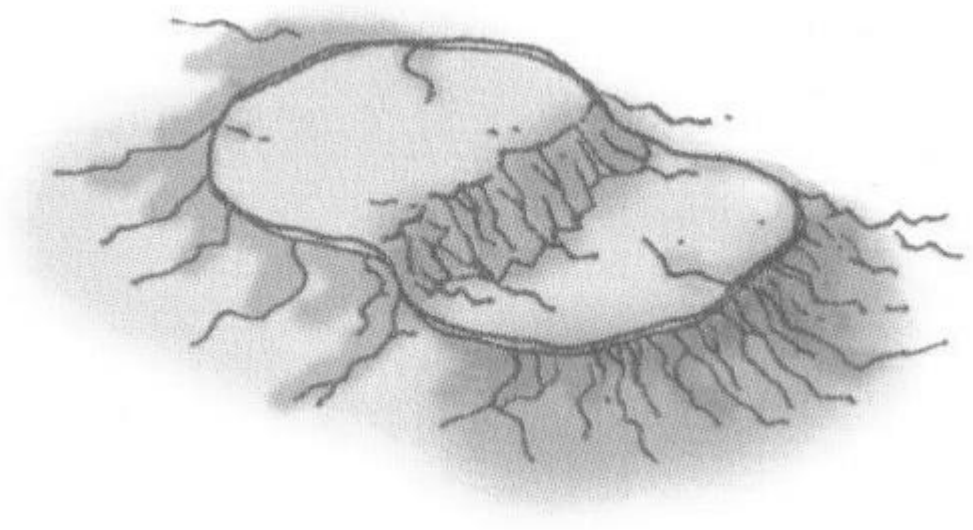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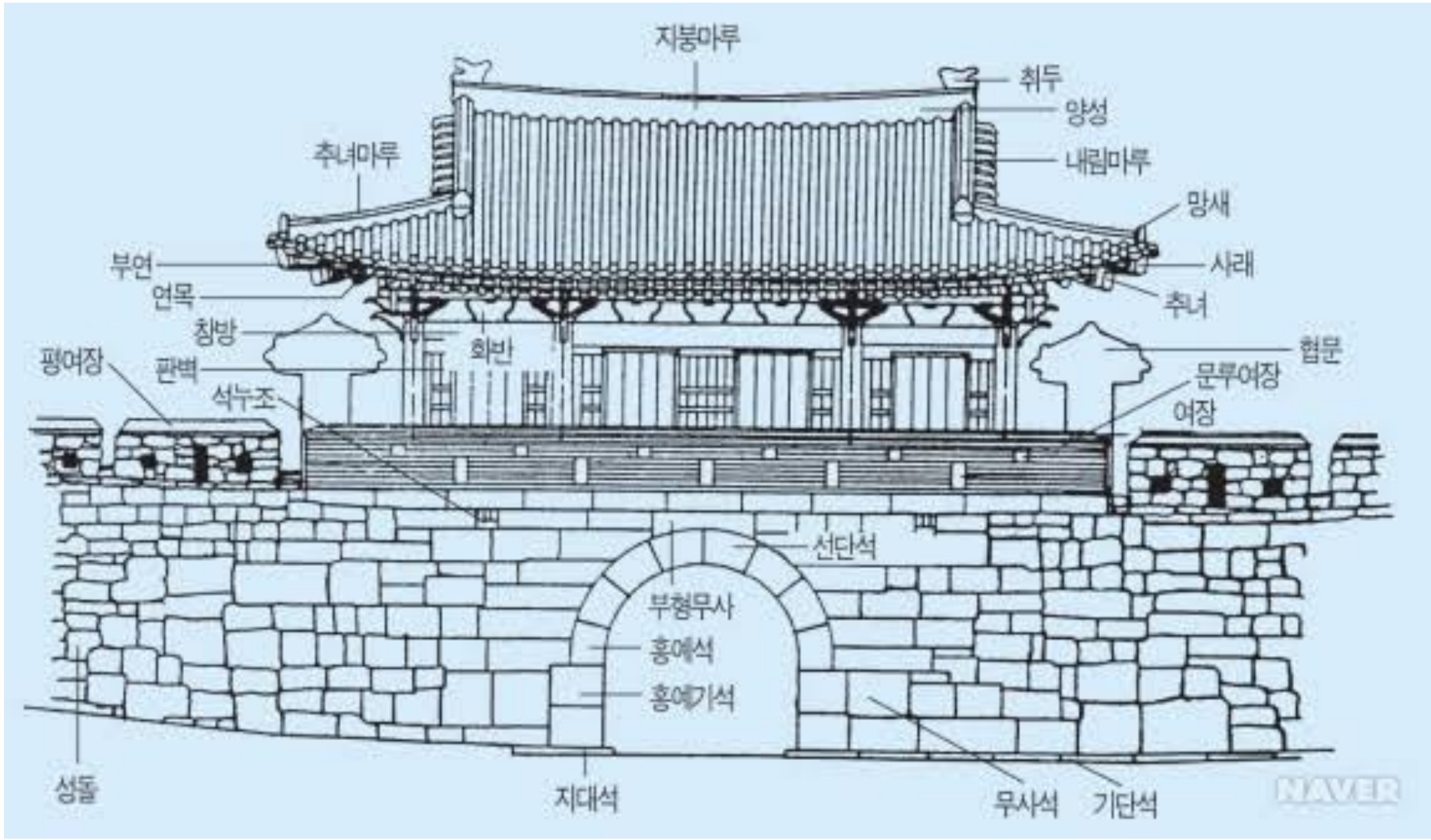
테뫼식(산정식) 산성 … 성곽의 축조지형이 산의 정상을 중심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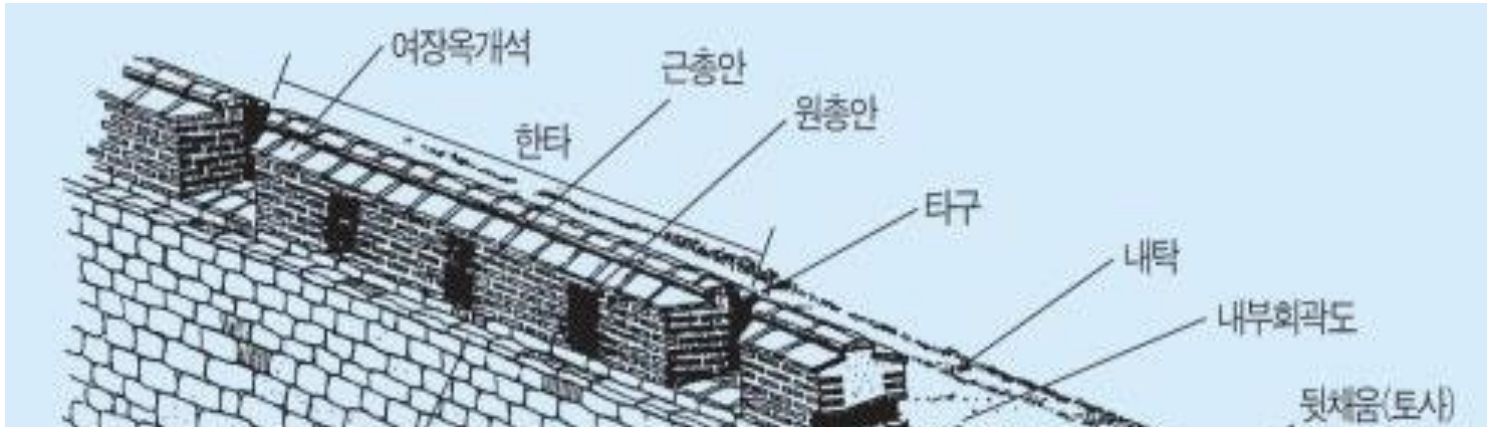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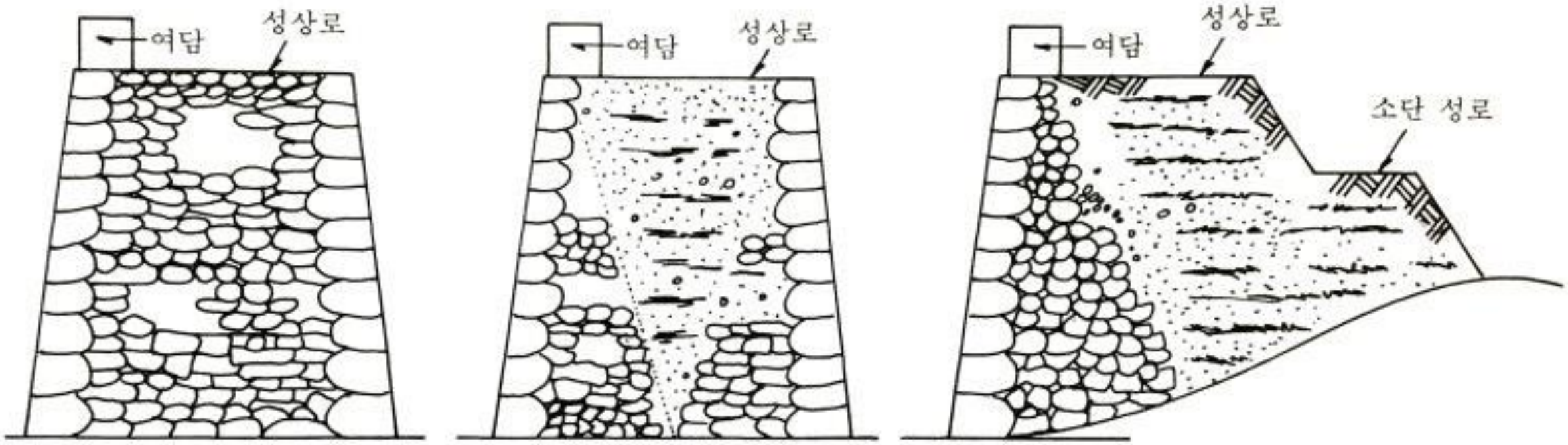
포곡식 산성 … 성곽안에 계곡을 감싸고 축성된 것을 말하며 규모가 산정식보다 큼



복합식 산성 … 일부는 테뫼식 산성이고 일부지역은 포곡식 산성이 결합해서 이루어진 복합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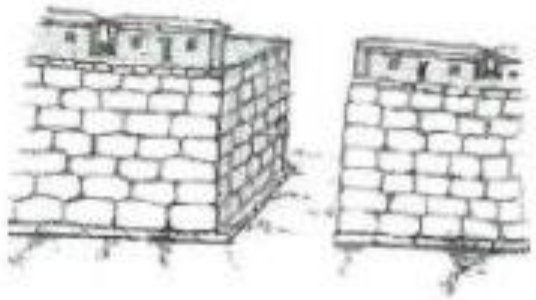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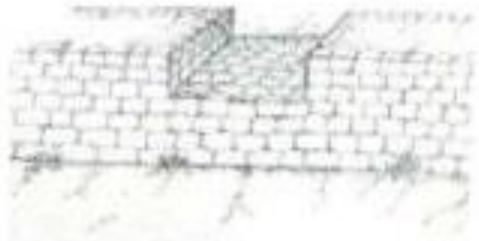

지붕마루
취두
양성
내림마루
추녀마루
망새
부연
사래
연목
추녀
침방
회반
협문
평여장
판벽
문루여장
석누조
여장
선단석
부형무사
홍예석
홍예기석
성돌
지대석
무사석
기단석
NAVER





(a) 협축(적심석)　(b) 협축(적심석과 토축)　(c) 편축(내면 토탁)

그림 5.2 협축과 편축

			
개거식 성문	평거식 성문	홍예식 성문	현문









현문(식) 성문

* 고구려성의 특징

1) 맨 아래 기단은 큰돌로 받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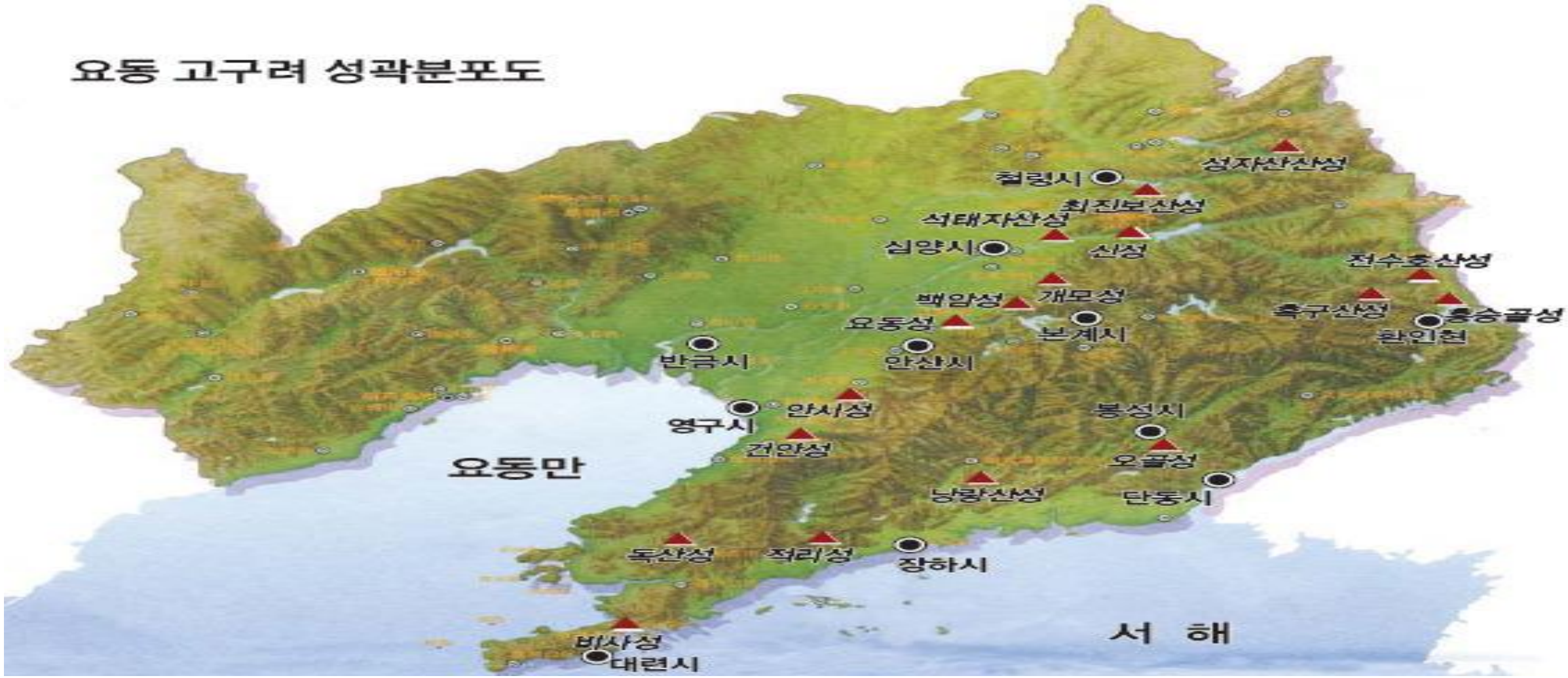
2) 굽도리 부분의 들여쌓기
(퇴물려쌓기, 물려쌓기)

3) 굽도리 부분의 내쌓기

4) 그렝이 공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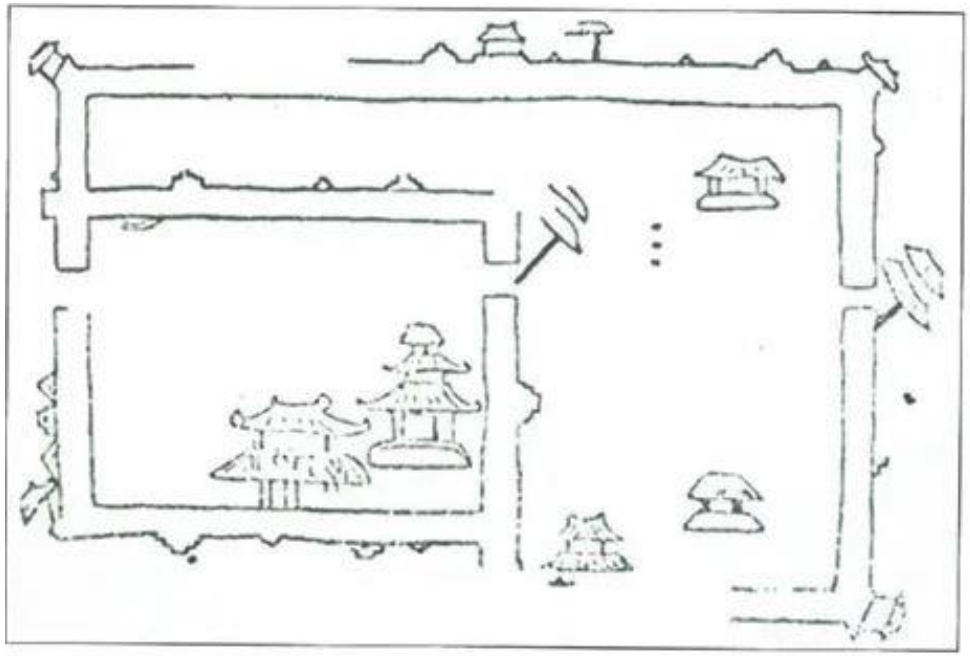
5) 성가퀴, 치성(雉城), 옹성(瓮城)




요동 고구려 성곽분포도
철령시
성자산산성
최진보산성
석태자산성
심양시
신성
천수호산성
백암성
개모성
요동성
본계시
혹구산성
흥승골성
환인현
반금시
안산시
안시성
영구시
봉성시
건안성
요동만
오골성
단동시
낭랑산성
독산성
적리성
장하시
비사성
대련시
서 해


고구려와 수나라 전쟁도
① 고구려 말갈 연합군, 요서해안 공격(598년)
② 수나라 육군, 고구려 공격. 실패(598년)
③ 수나라 수군 함대, 전멸(598년)
④ 수 양제의 군대 공격로. 요동성 공격 실패(612년, 613년)
⑤ 수나라 우중문의 별동대 평양성 공격(612년)
⑥ 수나라 래호아의 수군 상륙과 평양성 공격 실패 (612년)
⑦ 수나라 래호아의 수군
비사성 공격 실패(614년)
부여성
천리장성
개모성
요동성
안시성
박작성
국내성
유성(조양)
탁군(북경)
석성
비사성
평양성
1
2
3
4
5
6
7





* 요동성의 특징

- 고구려의 성으로 유명하지만, 고구려가 차지하기 이전에는 요동군의 치소가 있던 곳이었으며 요동의 공손씨 정권인 동연의 근거지
- 산을 끼고 건설된 고구려의 일반적인 성들과는 다른 평지성(성벽 높이 20m추정)
- 요동지방으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길목
- 수도 평양성이 나당연합군에게 함락되어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항복하지 않은 11개 성 중 하나

(양암성, 목저성, 수구성, 남소성, 감물주성, 능전곡성, 심악성 등)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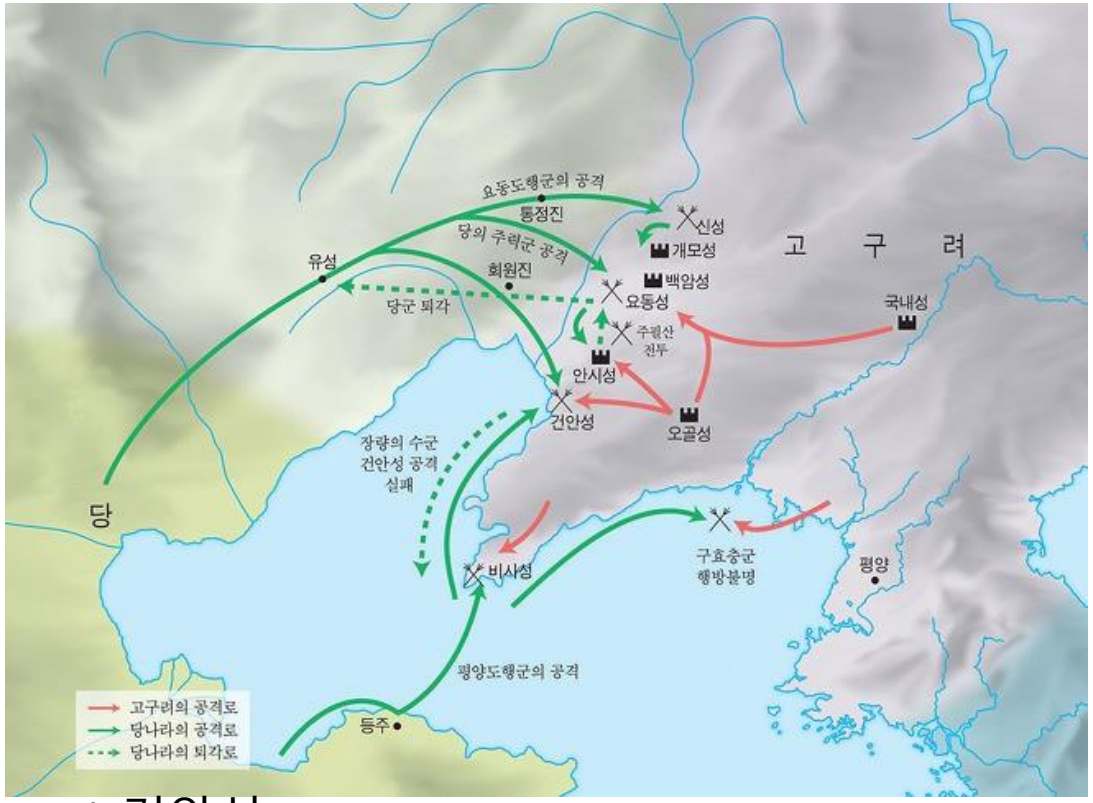
* 백암성

- 지리적으로 요하(遼河)유역에 위치하여 고구려와 당나라의 국경지대에 있었던 성

- 당태종이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입하여 요동성(遼東城)을 격전 끝에 점령 뒤 공격 목표를 백암성으로 정하여 성의 서남부를 공격하자 성주 손대음(孫大音)이 항복

(https://earth.google.com/web/@41.29708143,123.48542108,72.78034506a,826.39294778d,35y,2.99135024h,

- **고구려의 대중국 전쟁 : 고구려 vs 당나라**





* 건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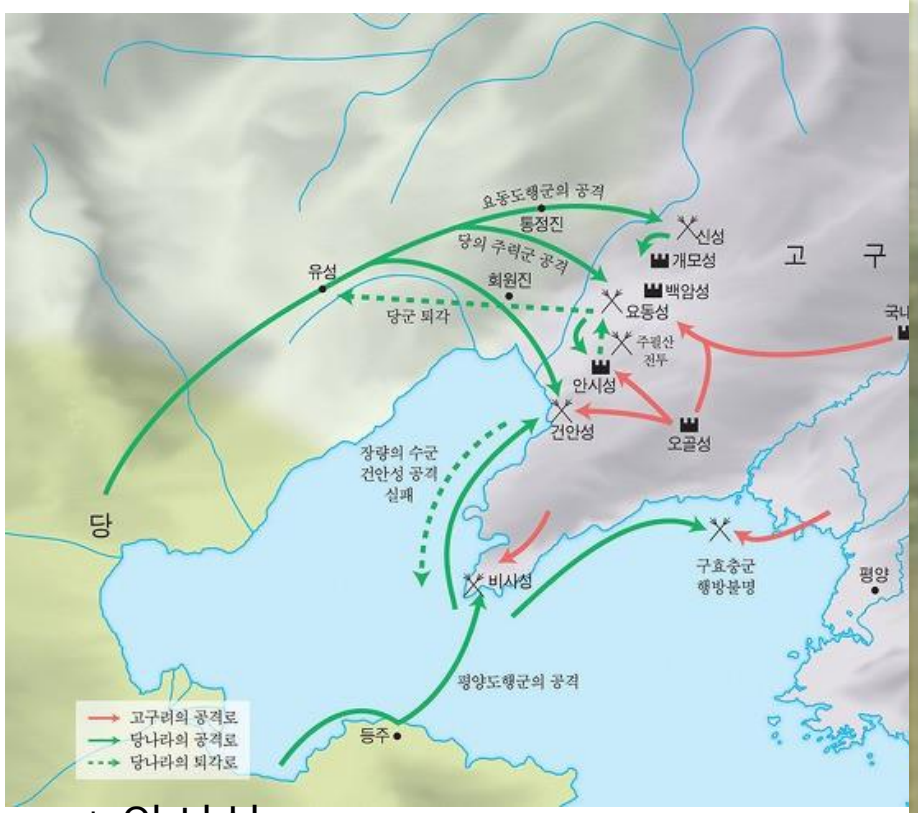
- 포곡식 산성으로 성 전체의 둘레는 약 5km

- 서쪽 골짜기 입구를 제외하면 사방이 산등성이, 골짜기 입구의 남북 양측에는 해발 300m 전후의 노청산(老靑山)과 노경산(老慶山), 요하 유역 고구려 산성 가운데 가장 넓은 편

- 성 안 중앙에는 금전산(金殿山)이라는 작은 산, 금전산에서는 장대(將臺)로 보이는 건물터와 기와조각 발견/

(https://earth.google.com/web/@40.45068893,122.43083697,74.93587031a,6847.6010801d,35y,0h,0t,0r/data=CgRCAggBOgMKATBKDQi… 8BEAA

- **고구려의 대중국 전쟁 : 고구려 vs 당나**







* 안시성

- 안시성을 언급하는 사서마다 그 위치가 다르거나 부정확하기 때문에 확실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요동반도의 해성시 일대 영성자산성으로 추정

(https://earth.google.com/web/@40.77984647,122.77613722,60.74474058a,2499.94405043d,35y,2.99161821h,23.55234717t,0r/data=CgRCAggBOgMKATA)

0
3km


天下第一關

수원 화성의 축조

- 정조 13년(1789년) 사도세자 무덤 이장 – 현륭원
- 신도시 건설
- 1794년 1월 착공, 1796년 9월 완공
- 정약용 설계, 채제공 총괄, 조심태 지휘
- 거중기, 녹로 등 신기재 고안 사용
- 부속시설문인 화성행궁, 중포사, 내포사, 사직단 건립 – 전란으로 소멸
- 1975-79년까지 “화성성역의궤”에 의거 보수 복원

화성성역의궤


華城城役儀軌
卷首


華城城役儀軌凡例
一凡儀軌之書叙月日則日記之粹者也述事例則謄
錄之大者也備憲章則叅之禮典明制作則倣諸考
工撫實而具悖史之體因時而存簿領之規該六法
而成一統之書其彙分目立發凡起例亦循用冊府
編纂之要旨也第自 國朝以來稽制所司名山所
藏皆用謄本鐵券未嘗印行其書遽我 聖上乙卯
置整理儀軌廳命館閣諸臣編次 園幸儀軌印布
中外蓋為重其事而垂其傳也丙辰秋城華之役始
訖一遵敦匠廳例既修謄本儀軌且別具謄錄俾作
本府掌故之資矣後有成書刊印之命乃就其謄本
而刪潤之裒為一帙屬草槀未完整理儀軌印本出

- 1794년(정조 18)1월부터 1796년(정조 20) 8월까지의 수원의 화성 성곽 축조의 기록
- 1801년(순조 1) 9월 간행
- 2007년 7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 10권 8책

  → 화성 건설 계획에서부터 동원된 인력의 인적사항, 재료의 출처 및 용도, 예산 및 임금계산, 재료가공법, 공사일지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건축사에서 중요한 사료이며 기록으로써의 역사적 가치가 있음

- 금속활자로 인쇄되어 널리 반포

  → 왕실과 국왕의 권위를 높이려는 화성 건설의 의미를 선전 & 사업의 성과를 국왕과 신하들이 함께 하기 위함


북서적대
장안문
북서포루
서북공심돈
북동적대
북포루
북동포루
화서문
화홍문
동암문
동북공심돈
방화수류정
서북각루
북암문
각건대(동북포루)
서노대
동장대(연무대)
동북노대
서암문
서장대
화성행궁
수원천
동일포루
서포루
창룡문
서남암문
치성(동일치)
남포루
동포루
봉돈
서남각루
팔달문
동남각루

장안문



화서문







팔달문

창룡문

팔달



장안



창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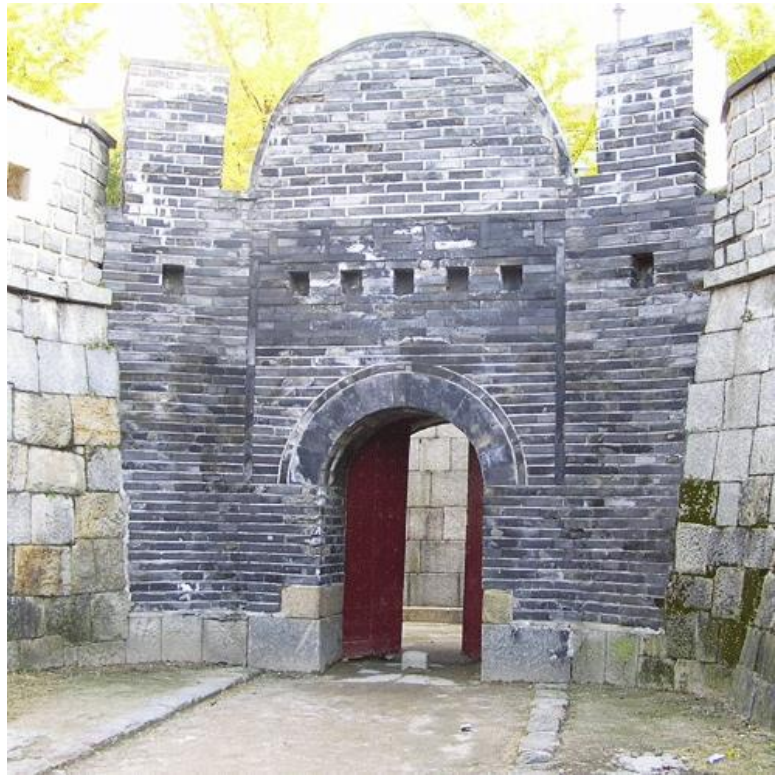


화



암문(暗門) – 동암문, 서암문, 남암문, 북암문, 서남암문

- 일종의 비밀 출입구





수문(水門) – 북수문(화홍문), 남수문





적대(敵臺) – 북문의 동과 서, 남문의 동과 서

- 적의 동태를 감시하고 성벽에 접근하는 적을 측면에서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든 건물





노대(弩臺) – 서노대, 동북노대

- 높은 위치에서 바깥 적의 동정을 살피고 성안의 군사에게 밖의 사정을 알릴 수 있는 건물





장대(將臺) – 서장대, 동장대

- 장수가 군사를 지휘하는 곳





공심돈(空心墩) – 서북공심돈, 남공심돈, 동북공심돈

- 바깥을 멀리 감시하는 망루 역할







Cf)봉돈(봉돈)
:인근 지역의 성이나 군사 초소와 긴급 시 연락할 수 있도록 만든 건물
봉화와 비슷함.

각루

- 성벽
- 방화수



포루(砲樓)

- 돌출시
  설물



치성(雉城)

– 북동치, 서1치, 서2치, 서3치, 남치, 동1치, 동2치, 동3치

- 성벽을 돌출시켜 성벽에 접근하는 적을 공격할 수 있게 만든 시설





포루(鋪樓)

– 동북포루(각건대), 서포루, 북포루, 동포루, 제2동포루

- 치성 위에 군사들이 몸을 숨길 수 있도록 지은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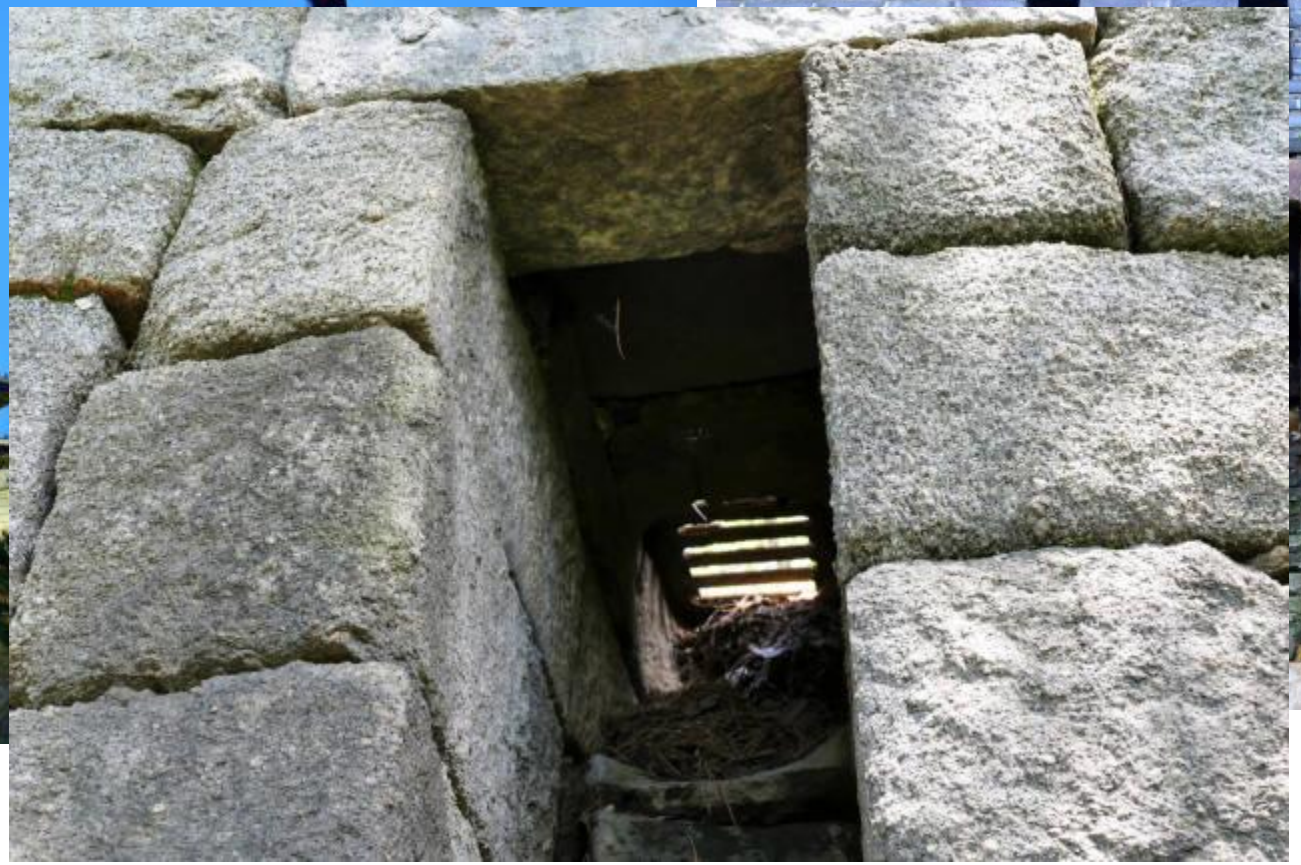




현안(懸眼)

- 적을 감시하기 위해 만든 성의 부속적인 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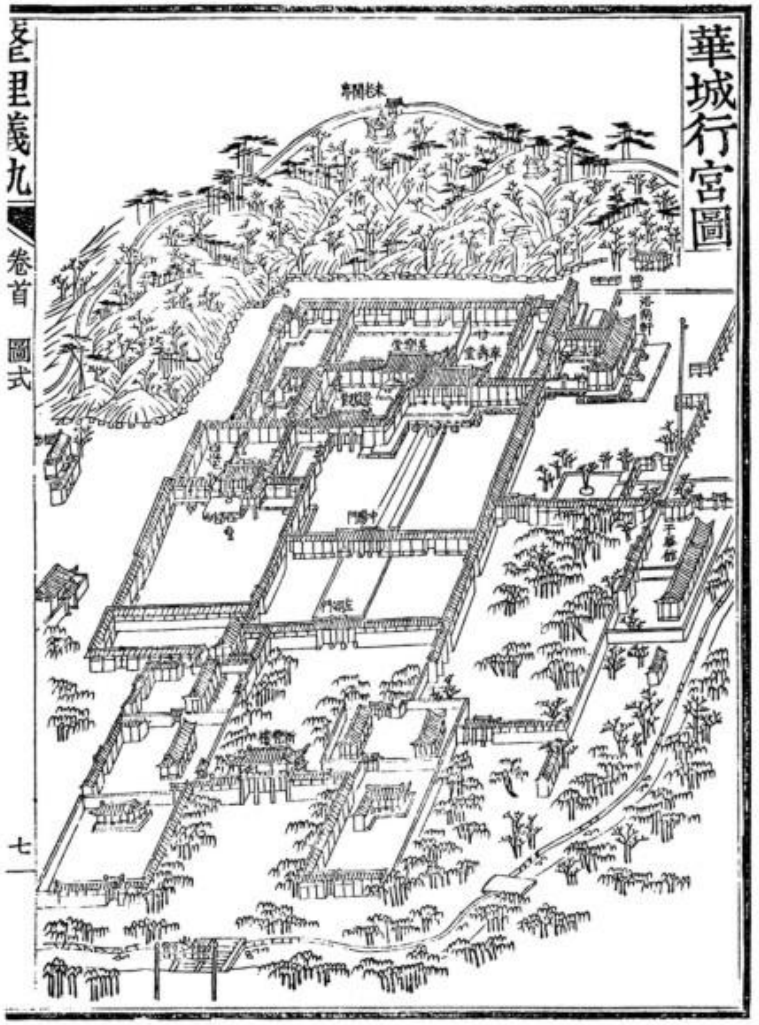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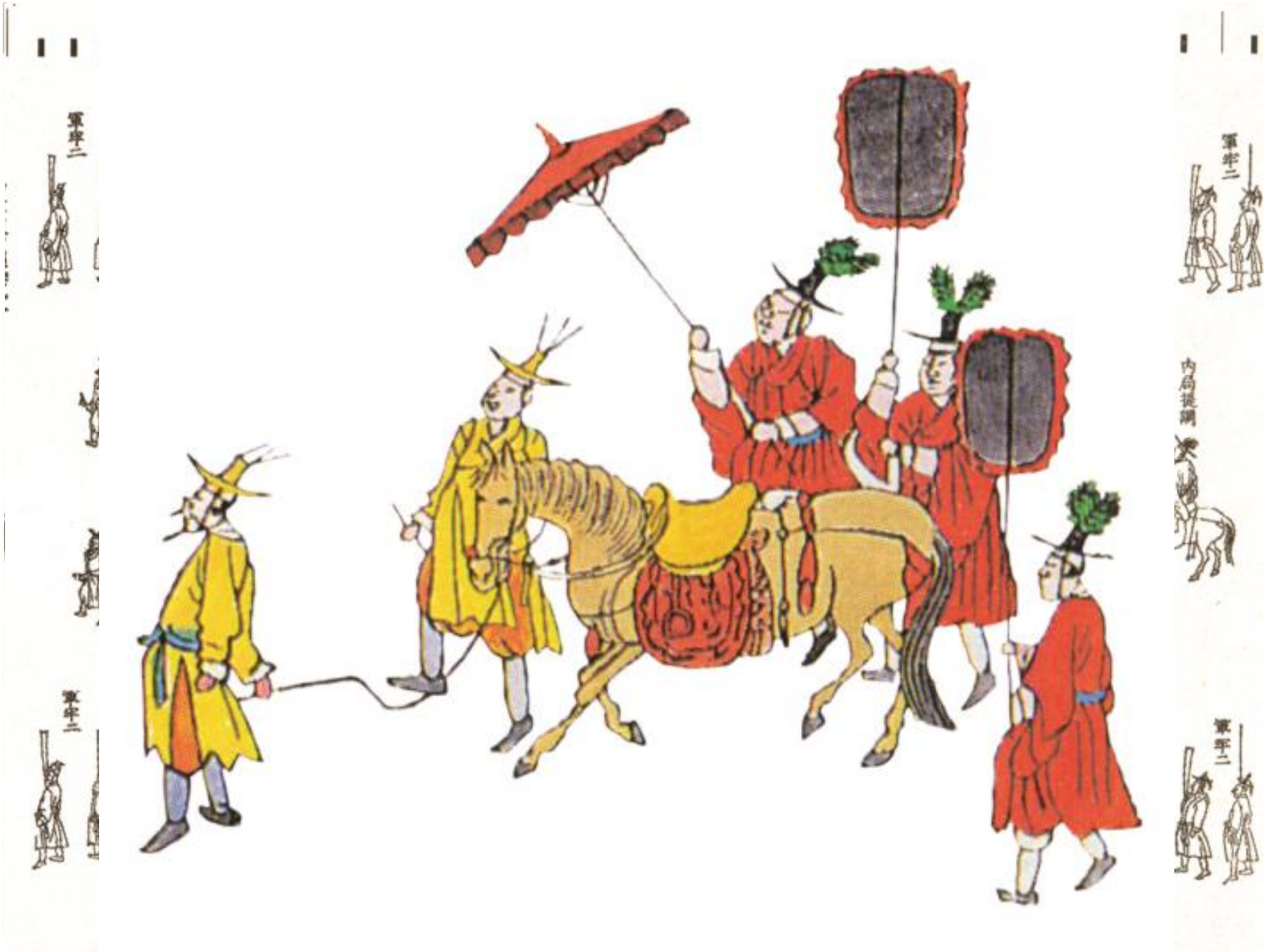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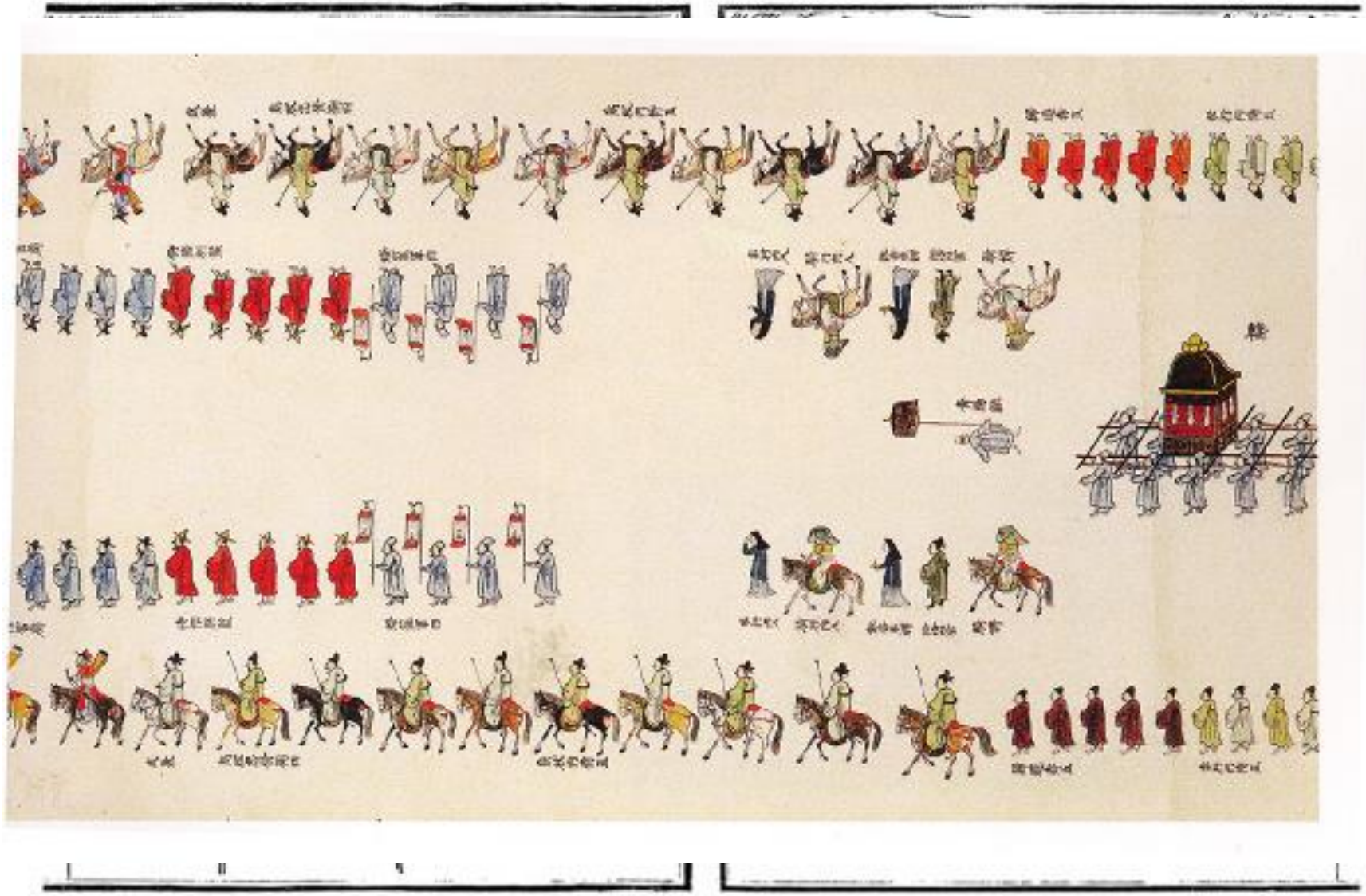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

- 179
- 8일









수원 화성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 축성시의 성곽이 거의 원형대로 보존
- 축성의 동기 – 군사적 목적, 孝 사상 – 왕권강화
- 평산성(平山城) – 군사적 방어기능, 상업적 기능
- 과학적, 합리적, 실용적 – 동양성곽의 백미
- 1997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 “18세기에 완공된 짧은 역사의 유산이지만 동서양의 군사시설 이론을 잘 배합시킨 독특한 성으로서 방어적 기능이 뛰어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약 6km에 달하는 성벽 안에는 4개의 성문이 있으며 모든 건조물이 각기 모양과 디자인이 다른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수원 화성의 특성

- 축성시의 성곽이 거의 원형대로 보존
- 축성의 동기 – 군사적 목적, 孝 사상
- 평산성(平山城) – 군사적 방어기능, 상업적 기능
- 과학적, 합리적, 실용적 – 동양성곽의 백미

王權强化

수원화성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 1997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 “18세기에 완공된 짧은 역사의 유산이지만 동서양의 군사시설 이론을 잘 배합시킨 독특한 성으로서 방어적 기능이 뛰어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약 6km에 달하는 성벽 안에는 4개의 성문이 있으며 모든 건조물이 각기 모양과 디자인이 다른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조선왕조실록



◆25대 임금들의 실록 28종

(25개 + 선종,현종,경종 수정·개정 실록)

◆고종, 순종실록은 포함X

◆연산군과 광해군은 일기형식, 그러나 그 내용 구성에 있어서는 실록과 똑같다.

조선왕조실록 편찬과정

◆실록청 설치(삼정승 중 1명이 최고책임자)

◆初草 → 中草 → 正草 → 2부 등사 (세종 27년 2부 추가)

◆사초, 초초, 중초를 세초(洗草)하여 없앰

◆춘추관과 충주사고에 보관 (추가 – 성주, 전주사고)

◆임진왜란으로 소실 – 전주사고 실록을 바탕으로 4부씩 다시 간행(태백산, 정족산, 적상산, 오대산)



실록청



조선왕조실록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1997년 10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

◆정족산본 1,181책, 태백산본 848책, 오대산본 74책, 기타 산엽본 21책 총 2,077책

◆조선시대의 정치, 외교, 군사, 제도, 법률, 경제, 산업, 교통, 통신, 사회, 풍속, 미술, 공예, 종교 등 각 방면의 역사적 사실을 망라하-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귀중한 역사 기록물

◆조선왕조실록은 그 역사기술에 있어 매우 진실성과 신빙성이 높은 역사기록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세계기록유산으로서의 가치

◆왕조의 역사기록으로 세계에서 장구한 세월에 걸친 실록

◆내용이 다양하여 가히 백과전서적 실록

◆역사기술에서 매우 진실성과 신빙성이 높은 역사 기록물

◆한국 인쇄문화의 전통과 높은 문화수준을 보여줌

◆조선말기까지 이들 실록이 완전하게 보존되어온 것도 세계적으로 유례를 보기 힘든 일

◆일본, 중국, 몽고 등 동아시아 제국의 역사연구, 관계사 연구에도 귀중한 기본자료

승정원일기

- 조선시대 왕명의 출납을 맡아 비서실의 기능을 하던 승정원에서 날마다 취급한 문서와 사건을 일자별로 기록한 책 – 승정원의 업무일지
- 건국 초부터 작성 – 1623년(인조 1년)부터 남아 있음
- 288년 3,243책, 2억4천만여자
- 1999년 국보 303호로 지정
- 2001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天啓三年
承政院上
甲午七月日記合
宮內府上
甲午十一月日記合
秘書監上
乙未四月日記合
乙未十一月日記合
秘書監上
乙巳三月日記今
日記





승정원

- 승정원 – 조선시대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던 기관
  - 국왕의 지시사항이나 명령을 각 기관과 외부에 전달하는 역할
  - 국왕에게 올라오는 각종 문서나 신하들의 건의사항을 왕에게 전달하는 **임무**
- **정원(政院)·후원(喉院)·은대(銀臺)·대언사(代言司)**
- **6승지(정3품) – 도승지, 좌승지, 우승지, 좌부승지, 우부승지, 동부승지 – 6조의 업무를 분장**
- **주서(정7품) 2명 – 기록과 문서 관리 – 승정원일기 편찬**

승정원일기 작성요령

1. 국왕에게 아뢴 것은 모두 기록한다.
2. 각 관청의 草記는 참고될 만한 것만 기록한다.
3. 臺諫이 아뢴 것은 모두 기록한다.
4. 상소, 入啓한 것은 대강만 기록한다.
5. 입계 呈辭, 政事, 謝恩, 下直 등은 기록한다.
6. 各殿藥房, 朝廷, 승정원, 홍문관의 문안을 기록한다.
7. 왕의 傳敎는 모두 기록한다.
8. 관상감에서 보고하는 災異는 당일자에 기록한다.
9. 朝報, 각도 書目과 御使回啓, 吏兵曹歲抄, 敍用 등은 기록한다.
10. 禁府啓目 등 참고될 만한 것은 기록한다.

세계기록유산으로서의 가치

가치 분류	근 거
기록학적 가치	단일 기록으로는 최대 역사 기록(총 3,245책, 2억 4천250만자) · 조선왕조실록 888책 5,400만자 / 중국 二十五史 3,386책 3,990만자
사회·문화적 가치	19세기 말 20세기 초 서구의 충격에 대한 국왕의 최 측근에서 정리한 역사 기록(동서 문화 교류적 측면)
	(1) 동양 군주사회의 정치 및 정책 입안과 권력 구조에 대한 확인 및 기록문화의 전통을 보여주는 자료
	(2) 300년간의 국왕 비서실 승지들의 근무상황 기록(행정학 자료)
	(3) 우리나라 르네상스기라고 일컫는 영정조 시대 문예부흥의 생생한 문화정책 복원 가능(정치사 측면)
	(4) 고종 31년 갑오경장 이후 일기 내용은 일제에 의한 내정 간섭기 궁중기록으로 조선왕조 국왕의 결재를 요하는 사건과 기타 궁중 비화를 기록한 것으로 근대사 연구의 제1차 기본 사료(역사 자료)
과학적 가치	(1) 17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288년간 매일의 기상 정보 확인(가뭄 기록 확인)
	(2) 288년간 태양력과 갑진일력의 비교 및 요일 사용시기 확인
국문학적 가치	(1) 300년간의 일기 원문으로 한문학 및 국문학의 변천을 확인
	(2) 이두 사용과 개항기 국가 문서의 국한문 혼용의 역사와 일본말과 일본 관제를 비롯한 외국문물의 유입 시기 및 실태를 확인

조선왕조의궤

- ❖의궤 – 조선왕조에서 유교적 원리에 입각한 국가 의례를 중심으로 국가의 중요 행사를 행사 진행 시점에서 당시 사용된 문서를 정해진 격식에 의해 정리하여 작성한 기록물.
- ❖조선시대 500여년에 걸친 왕실의 주요 행사, 즉 결혼식, 장례식, 연회, 사신영접, 건축물 왕릉 조성, 왕실문화활동 등에 대한 기록
  -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546종 2,940책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287종 490책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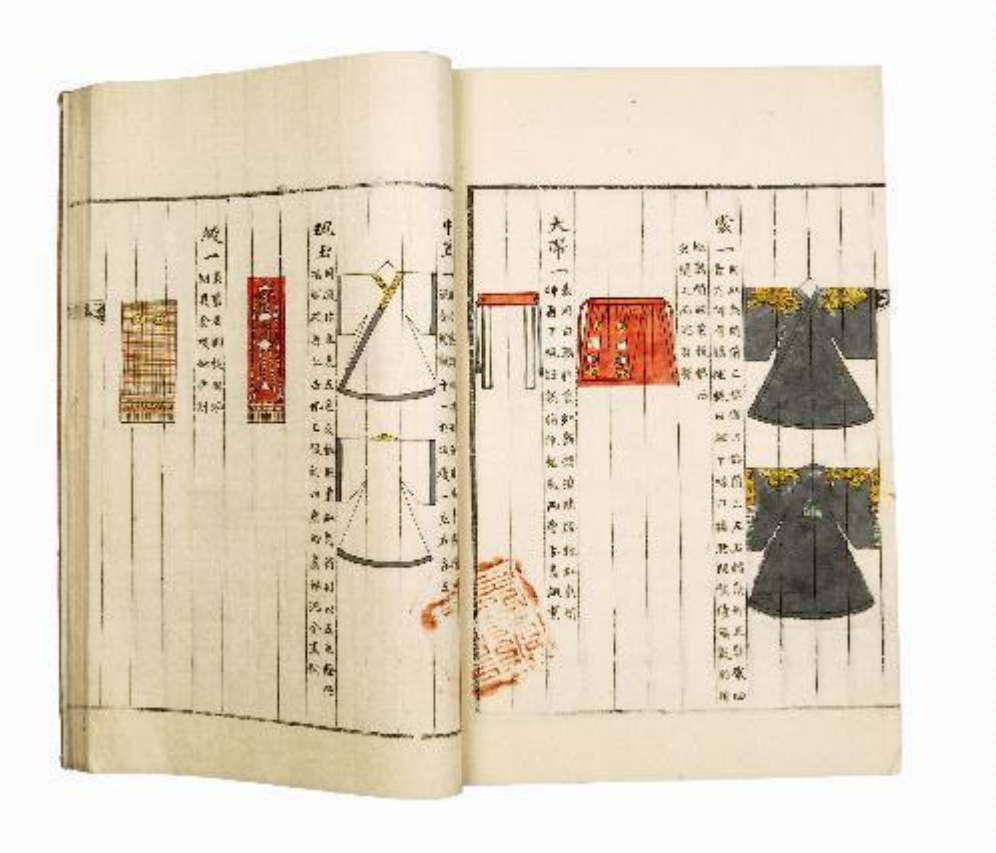
❖장기간에 걸쳐 조선왕조의 주요 의식을 방대한 양의 그림과 글로 체계적으로 담고 있어 이러한 유형은 동서양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

❖의궤는 대부분의 유교사회에서 잊혀진 과거 유산을 보존하고 있는 기록

❖의궤는 조그마한 군주국가의 기록이 아니라, 한때 세계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유교 전통의 핵심을 대표하는 기록

❖2007년 6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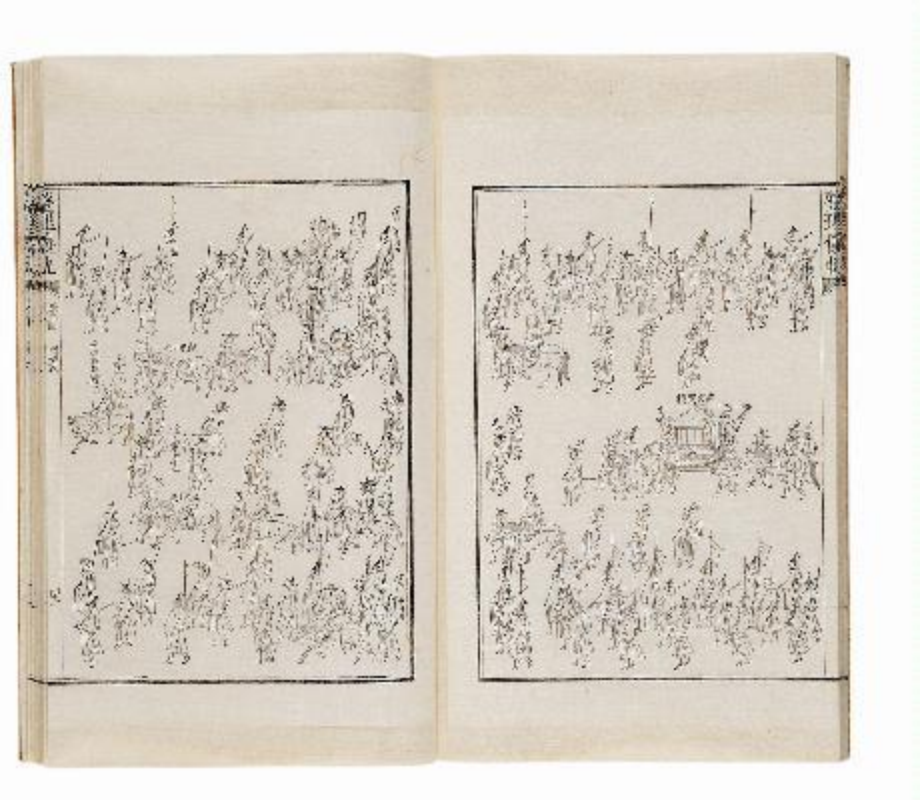
정조국장도감의궤





원행을묘정리의궤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





명성황후국장도감의궤

- 병인양요와 의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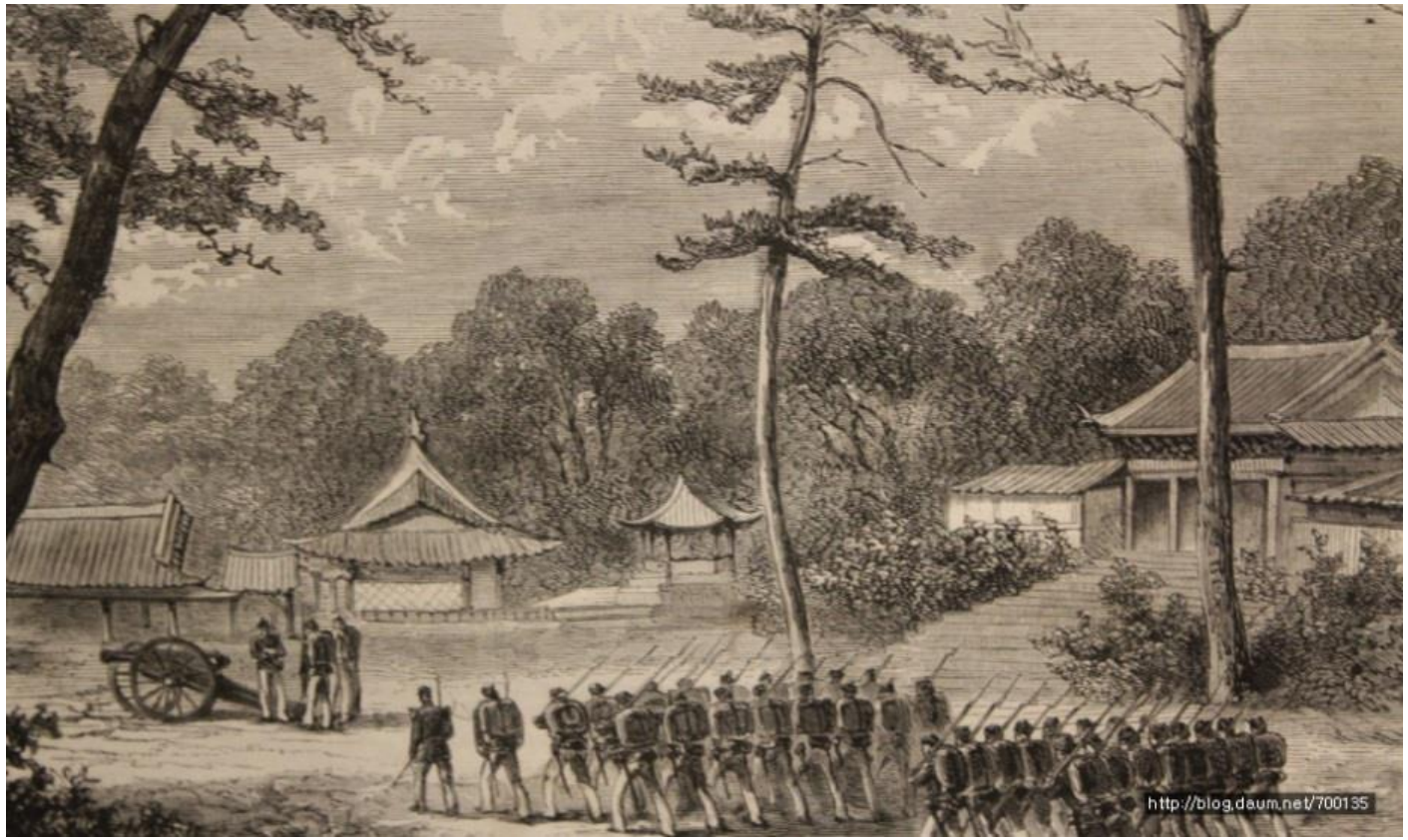
- 외규장각 의궤 : 외규장각은 1782년 규장각 보관 자료 중 왕실의 주요 물품과 도서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설치

- 강화도는 전통적으로 국방의 요충지이자 방어의 거점으로 중요 기록물을 보관하기에 적절한 곳으로 여겨짐

- 강화도내에는 외규장각외에도 실록과 왕실 족보를 보관하는 정족산 사고가 이미 설치되어 있었음



- 외규장각 의궤의 특징
  : 국왕이 열람하기 위해 제작된 어람용 의궤,
  따라서 완성도와 예술적 가치가 뛰어남



1867년, 37.9x27.8cm, 인쇄본, 명지대학교 LG연암문고소장

병인양요에 참전했던 프랑스 해군 쥐베르(M. H. Zuber)가 프랑스 최초의 주간지인 "L'Illustration"에 글과 함께 실은 스케치(삽화).

외규장각으로 추정되는 건물 앞을 행군하는 프랑스군

- 병인양요와 의궤





- 병인양요와 의궤

- 병인양요시 프랑스군은 강화의 외규장각을 불태우고 의궤 약탈(297권)
 - 의궤의 존재는 잊혀졌으나 1975년 프랑스 국립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박병선 박사에 의해 존재가 알려짐
 - 1991년 의궤 반환 요청
 - 1993년 프랑스 미테랑대통령 방한시 '수빈휘경원원소도감의궤' 반환
 - 프랑스문화계의 반발로 의궤반환 지지 부진
 - 2001년 프랑스 소유의 어람의궤와 국내 분상용의궤(예비본)의 맞교환 형식의 반환 합의(국내여론의 반발)
 - 2011년 4월 1차반환

- 병인양요와 의궤



고 박병선 박사

-1928년(서울) ~ 2011년 11월 23일 (향년 83세)

- 서울대학교 재학 때 교수였던 이병도가 병인양요 때 프랑스 군대가 약탈해간 고서들을 한번 찾아보라고 한 이야기를 잊지 않고 3,000만 종이 넘는 장서를 뒤졌다. 1975년 박병선은 프랑스국립도서관 별관 창고에서 외규장각 의궤를 찾아냈으나 도서관의 비밀을 발설했다는 이유로 사직을 권고 당했다. 1980년 도서관에 사표를 낸 후 10여 년간 도서관 이용자로 외규장각 도서 열람을 신청해 한 권씩 목차와 내용을 정리했다. 외규장각 도서는 1991년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처음으로 반환을 주장했고, 이듬해 한국 정부가 프랑스 정부에 이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여 2011년 대여 형식으로 한국에 돌아왔다

- "직지심체요절"을 찾아내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인쇄물임을 알리기도 함

감사합니다